



기업과 국민 모두의 사랑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키워온 IBK기업은행!

창립 54주년을 맞아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평생은행으로서  
언제나 든든한 희망금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 여성시대

양희은 · 서경석입니다

08

2015 August

이달의 편지  
감동의 수박 한 통 외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두 분 어머니를 모시는 즐거움



신청을 부탁해~

# 참! 좋은 친구 포코카드 이벤트

카드를 신청하시면 '포코포코 for KAKAO'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50다이하 쿠폰**을 드립니다!



## 친구 서비스

- 영화** 전국 영화관 및 인터넷 예매 **4천원 할인**  
- 통합 월 1회, 연 6회, 1만원 이상 결제 시 제공
- 외식** 아웃백, 빙스, 블랙스미스, 토다이, TGIF **20% 할인**  
- 통합 월 1회, 1회 이용금액 10만원 한도  
- 전월 이용실적 150만원 이상인 경우 통합 월 2회 제공
- 블고기브라더스, 세븐스프링스 20% 현장할인**  
- 통합 월 1회, 1회 이용금액 10만원 한도  
- 월간 통합할인한도와 관계없이 최대 2만원 추가 할인 제공

## 부가 서비스

- 금융**
  - 당행 ATM/CD기를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 타행 ATM/CD기 출금수수료 면제 (10회)
  - 당행 전자금융(텔레, 인터넷, 모바일) 이체수수료 면제
  - 환전(Cash, T/C) 수수료 우대 (USD, JPY, EUR)
- 놀이공원**
  -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주요 놀이공원 50% 현장할인

**이벤트 대상**  
신규 / 추가발급 고객 누구나

**이벤트 기간**  
2016.12.31까지

**이벤트 내용**  
IBK 기업은행에서 포코카드 신청 시  
포코포코 아이템 쿠폰 증정  
(게임 내 설정 메뉴에서 쿠폰 번호 등록 후 즉시 사용 가능)

## contents 2015년 8월호



**04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1**  
두 분 어머니를 모시는 즐거움



**10 이달의 편지**  
감동의 수박 한 통 외

**68 행복을 찾는 사람들**  
(주)창신 김태수 대표

**76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2**  
마음도 수선해드립니다

**82 코너 속 편지**  
천하골통 조 이병 "아아아아아아~!" 외

**106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변화의 출발점은 아이 아닌 부모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섬 돌레길 걷기

**112 행복한 책 읽기**  
《점심메뉴 고르기도 어려운 사람들》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 여성시대

**발행일** 2015년 8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광환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이한재, 서미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59 **주소** (121-904)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최숨이 **월간지**(비매물)

※ 본지는 한국도서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위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마산**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간월악) / 97.1(삼대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 두 분 어머니를 모시는 즐거움

인천 계양구 강문자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늙는 건 서글픈 일이다. 풍성했던 머리숱도 줄어들고, 피부엔 검버섯이 피고, 품안에 있던 자식들은 새로운 동지를 찾아 떠나간다. 쓸쓸하고 고적한 노년의 시간은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단어와 한 몸이 되곤 한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외로움이 심한 노인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외롭지 않은 노인에 비해 20%나 빠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걸 모르며 지내는 두 분이 있다. 여성시대는 그 두 분을 뵈러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를 찾았다.

현관문을 들어서자 거실에 똑같은 분홍색 인견 윗도리를 입은 노인 두 분이 등받이가 깊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계셨다. 올해 98세의 유진순 할머니와 86세의 양월선 할머니는 사돈지간이다. 서로를 '사부인'이라 깍듯하게 부르며 노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신다.

유진순 할머니에게는 딸이며, 양월선 할머니에게는 며느리인 강문자 씨는 여성시대 애청자다. 올해 딱 60세인 강문자 씨가 두 어른



을 함께 모신지는 이제 햇수로 2년째다.

친정어머니는 90세가 넘도록 충남 천안에서 지내셨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나는 괜찮다. 공기 좋은 시골에 사는 게 좋다” 늘 말씀하시던 친정어머니였다. 추운 겨울 난방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내시는 친정어머니가 늘 마음이 쓰여 겨울이면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지내시게 했다. 그렇게 겨울에만 잠깐씩 계시던 친정어머니는 6년 전 위가 좋지 않아 위 수술을 하신 후로는 잘 드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였다. 하루하루 기력이 떨어지는 어머니를 보며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강문자 씨의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다.

“장모님 우리가 모십니다. 일단 인천으로 모시고 옵시다.”

그렇게 5년 전 인천으로 온 친정어머니는 큰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고, 한방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하여 침과 보약으로 겨우 기력을 회복하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친정어머니는 그 후 딸의 집에 계시게 됐다. 먹는 것을 챙겨드리고, 걷는 걸 옆에서 도와드리고, 저녁이면 퇴근해 돌아온 손녀들의 안마를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회복을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걸, 친정어머니를 통해 강문자 씨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며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엄마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좋았다. 어디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서며 “엄마, 나 왔어” 할 때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 엄마의 “문자 왔냐?” 하는 인사도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 없었다.

강문자 씨는 친정어머니를 모시며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시어머니께서 혼자 충남 당진에 살고 계셨고, 시어머니의 몸도 이곳저

곳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당뇨에 골다공증, 그리고 귀가 어두워진 시어머니를 뵙고 오는 날은 마음에 그늘이 한가득 들어찼다.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하신 후 점점 아워어 가는 시어머니를 보다 못해 이번에는 며느리인 강문자 씨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모셔옵시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재작년 봄에는 목욕을 시켜드리기 위해 어머니 몸을 만지는 데 어찌나 마르셨는지 살가죽이 이리저리 흔들렸었다. 때수건을 가지고 때를 밀지도 못했다. 살가죽이 왔다 갔다 해서, 집에 모시고와 날마다 들깨죽을 해드리고 배를 갈아드리고 드시고 싶다는 과일을 챙겨드리니 아기들이 젖살이 오르듯 살이 올랐다.

요즘 며느리가 목욕을 시켜드리면 “아가, 나 살 많이 찼지? 다 너 덕분이다. 고맙고 미안하다” 말씀하신다. 아들이 저녁에 좀 늦게 들어와도 “아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지 나는 몰랐다. 미안하다” 예의 바르고 늘 며느리 마음 먼저 헤아려 주시니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예쁘기만 하다. 친정어머니 한 분을 모실 때보다 몸은 좀 더 힘들어졌지만 마음은 마냥 편했다.

강문자 씨의 하루는 늘 종종걸음이다. 새벽에 일어나 두 어머니 드실 음식을 준비한다. 치아가 성하지 않아 틀니를 하신 어머니들이 드실 수 있게 죽을 만들고 된장국을 끓이고 출근하는 남편과 딸들을 위해 밥을 준비해야 한다.

강문자 씨 냉장고에는 두 어머니가 드실 음식들로 가득하다. 나물 삶아 넣어둔 것, 들깨가루, 콩가루, 요구르트, 요거트, 두유와 치즈, 새우젓,







호박, 감자 삶은 것 등이 한가득이다. 어머니들을 위한 김치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잠깐 강문자씨표 김치를 소개하자면 이렇다. 배, 사과, 양파, 당근을 갈아 소금과 매실액을 넣고 간을 한 후 적당히 익으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매끼니 밥상에 내어 놓는다. 어르신들 드시기에 딱 맞춤이라 생각하여 개발한 김치다.

매 끼니를 맛나게 드시는 어머니들 보는 게 요즘 강문자 씨의 즐거움이다. 얼마 전 두 분 모시고 나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잘라드리고 인견으로 된 분홍색 옷을 똑 같이 사드리니, 두 분 얼굴에 함박꽃 같은 웃음이 피어올랐다.

두 어머니에게는 모든 걸 똑같이 해드린다. 혹시 한편에서 섭섭해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매사가 조심스럽다.

어머니들이 집에 계시니 집에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 친척과 지인들이 어르신들을 뵈러 오니 주말이면 잔치집이 된다. 친정식구들이 많이 오는 날은 혹시 시어머니가 불편해 하실까 싶어 근처에 사는 시동생에게 전화를 한다.

“서방님, 이번 주에 오셔서 점심이나 같이 먹어요.”

주말이면 양쪽집 식구들이 거실을 가득 채운다. 보통 15명쯤 되니 식탁에 밥을 차릴 수 없어 거실 바닥에 도배할 때 쓰는 도배지 한 장을 짝 펼쳐놓고 서로 엉덩이를 바짝 붙인 채 밥을 먹는다. 다리가 아파 바닥에 앉지 못하는 두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연신 흐뭇한 미소를 날린다.

그 웃는 모습에 힘든 줄도 모르겠다는 강문자 씨다. 남들은 묻는다. 어머니 두 분을 모시니 힘들지 않느냐고.

“한 분 모시는 것보다 두 분 모시는 게 훨씬 덜 힘들어요. 두 분이 계시니 어디 외출을 하고 와도 마음이 놓이고, 두 분이서 자매처럼 얼마나 알뜰하게 챙기시는지 몰라요. 저는 사랑이라는 걸 두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됐어요. 어머니들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고나 할까요. 우리 어머니들 웃는 것 좀 보세요. 웃는 모습이 얘기 같아요. 정말 예뻐요.”

강문자 씨는 어디를 갔다 왔을 때 “엄마, 어머니, 저 왔어요” 하며 들어설 날들이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의 방송인 여성시대는 지난 달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8년 5개월간 여성시대를 진행했던 강석우 씨가 떠나고 서경석 씨가 새로운 진행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석우 씨는 마지막 방송에서 “방송하는 입장에서 방송을 새로 시작하고 때가 되면 접고 떠나는 건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일상입니다. 하지만 8년 5개월이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감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2시간씩 매일 거의 생방송을 하다 보니 분의 아니게 말할수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나와 의견이 달라 내 이야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속이 상했던 분들에겐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날 테니 좋은 모습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내 마음속에 '여성시대'를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강석우 씨에게 바통을 이어 받은 서경석 씨는 첫 방송에서 “정말 큰 프로그램 진행자가 돼, 많은 애청자들의 분에 넘치는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여성시대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양희은 선배님에 비해서 새 발의 피지만 저도 1993년에 데뷔, 20년 넘게 수많은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오늘 같은 느낌은 처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 중 응원메시지를 남긴 제 친구 이윤석이 '장기근속하기 바랍니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진행자와의 동행에 많은 여성시대 가족들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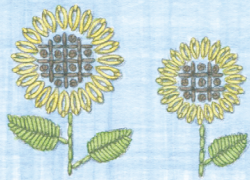
- 12 감동의 수박 한 통
- 15 41살의 치아 교정
- 18 맏이의 설움
- 23 마트에서 만나는 다양한 손님들
- 26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28 작두와 나
- 32 대를 이은 명언 노트
- 34 화상병원의 병실일기
- 37 귀농인들에게 바라는 점
- 40 엄마에게
- 43 아주머니가 돌아왔다
- 46 첫 월급으로 냉장고를
- 50 추억의 LP판
- 53 엄마 잃은 손녀를 키우며
- 55 미나리 묶는 작업장 풍경
- 60 하늘이 내린 선물, 산삼



일러스트 | 이경선  
chungpo@naver.com



## Letter 1

감동의  
수박 한 통

김길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일** 전에 710호에 사는 젊은 남자 분이 수박 한 통을 주셨다.  
“아주머니, 수박 드세요!”

나는 일하다 말고 “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다. 수박이 크고 싱싱해 보였다. 두 손으로 들고 내려와 지하실 냉장고에 넣었다. 일 끝나고 수박을 갈랐다. 매우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웠다. 4등분으로 갈라 경비아저씨랑 다음날 새벽에 교대하신 경비아저씨,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 이렇게 넷이서 잘 먹었다. 올해 처음 먹어본 수박이었다.

아파트 미화원으로 12년 넘게 일했지만, 수박을 받아보기는 처음이다. 감동받았고, 고마운 마음 금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아쉬운 건, 그 뒤에 그분의 얼굴을 잊은 것이다. 내가 일하는 라인에 살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있는 분인데, 만나도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아서



걱정된다.

나는 사람을 한두 번 보면 기억을 잘 못한다. 그래서 가끔 실수를 한다. 사탕을 한 움큼 주머니에 넣어주는 주민도 계시고, 직접 만든 만두를 주신 주민도 있고, 떡을 주시는 분, 음료수를 주시는 분도 있는데, 나는 그분들 얼굴을 다 기억 못한다. 그러나 호수는 매번 적어놔서 알고 있다. 선물세트를 주신 분도 있었다. 당시에는 직접 뵈고 해서 얼굴을 기억할 것 같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만다. 미안하고 아쉽다.

내가 맡아서 일하는 곳은 15층까지 좌우로 열두 세대씩이나 있다. 그래서 복도도 무척 길다. 물걸레로 닦을 때도, 빗자루로 쓸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서민 아파트인데 사람들이 친절하고 정이 많다. 간혹 내 나이를 묻는 주민도 있다. 그때마다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게 미안하다. 나이는 속일 수 없어서 겉으로 다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곧이곧대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도 뭣하다.

나는 일하는 게 즐겁다. 오래된 아파트라 계단의 '신주' 닦는 게 힘들지만 즐겁게 일한다. 아침에 젊은 사람들과 나란히 직장으로 향한다는 게 자랑스럽다. "수고하십니다" 하는 말 한마디에 감동과 감사를 느낀다.

내가 일하는 강서구 가양아파트 612동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내 집 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주신 분들께 일일이 인사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성시대를 통해서나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여 보, 있잖아. 나 치아 교정 하고 싶어.”  
드라마 여주인공에게 온통 마음이 뺏겨 있던 남편이 제 말에 놀랐던지 텔레비전까지 끄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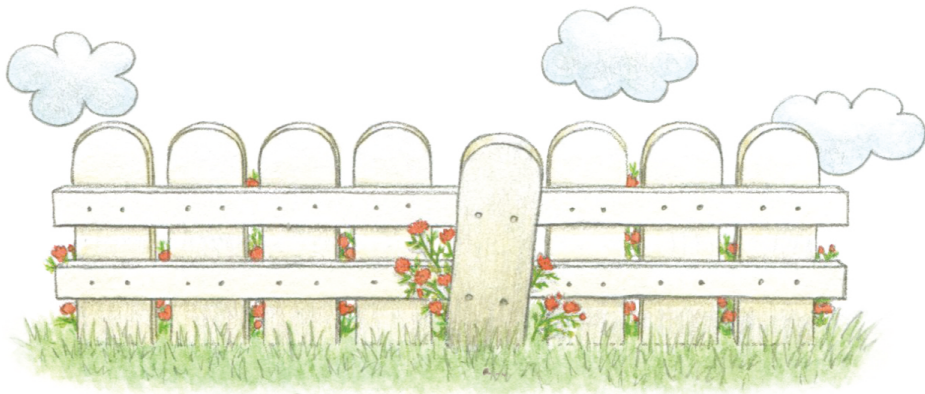
“뭘? 뭘 한다고?”

“치아 교정.”

“당신 나이가 몇인데 치아 교정이야? 그거 돈도 엄청 많이 들어. 지금 애들 둘 해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지요. 섭섭했습니다. 결혼하고 살면서 사치라고는 발가락에 매니큐어 발라본 게 전부인 겁니다. 17년 동안 아침에 누룽지 끓여 먹이고, 도시락도 10년이나 썼고, 두 아이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봤으





면, 그 정도는 흔쾌히 “그래!”라고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보였네요.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나이에 수백만 원이 드는 치아 교정을 한다는 게 사치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애들 두 명도 틀어진 치아를 교정 중입니다. 아이들은 보철기를 껴서 뻑뻑하고 불편하다고 투정을 부리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아이들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양치질을 할 때마다 뻑뻑뻑뻑한 제 치아가 영 거슬렸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반듯하게 치아가 맞춰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니들은 좋겠다. 부모 잘 만나서 교정도 하고…” 말했더니, 작은 녀석이 “제가 얼른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해드릴게요” 말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갈 적마다 쿨하게 넘겼던 저인데, 얼마 전 양치질을 하다가 거울을 보니 앞니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고, 오른쪽 앞니 하나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서, 이후로 만나는 사람들과 제 ‘이’만 쳐다보는 것 같고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돈 좀 아껴 보겠다고 앞니의 튀어나온 부분을 사포로 갈아보기도 했습니다.

제 엄마는 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리 피는 못 속인다지만 닳을 게 없어서 하필이면 못나도 제일 못난 이빨을 닳아부렀나.”

저는 엄마를 닳아서 치아가 예쁘질 않아요. 하지만 그때 교정이 된 지도 몰랐던 시절이고, 그저 생긴 대로 살다가 생긴 대로 가는 게 순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엄마한테도 툭 튀어나온 앞니는 콤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사진 속의 엄마는 언제나 화난 사람처럼 입을 다물고 계셨으니까요. 어쩌다 웃기라도 하면 엄마의 앞니는 입술 안쪽에 숨어 있다가 ‘까꿍’ 하고 튀어나오기가 일쑤였습니다.

저도 어릴 땐 막연히 ‘나중에 돈 벌면 예쁜 ‘이’로 만들어드려야지’ 했는데 엄마 나이 오십 줄에 치아를 몽땅 빼고 틀니를 해드렸네요. 그것도 정식으로 만든 틀니가 아니어서 엄마의 잇몸은 늘 부어있고, 입술 형태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엄마는 늘 제 치아를 보면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시집가든 꼭 남편한테 해 달라고 해라. 그러서 니는 자신감 있게 살아.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죠.

남편은 요즘 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저 여자가 교정을 진짜로 한다고 하면 어쩌나~.’ 이런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로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마흔이 넘은 아줌마는 교정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저도 사진을 찍을 때면 엄마처럼 입을 꼭 다문 채 모나리자 미소만 짓고 있습니다. 예쁜 치아로 자신 있게 활짝 웃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혹시 저의 이기심일까요? 오늘도 저는 거울 앞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빈 들에 모들이 하나 둘 심겨진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싱그럽다’ 하거나 ‘아, 여름이 오고 있구나!’ 하겠지만 가난한 소작농의 딸이었던 나는 4남매의 맏이로 태어나 아픈 기억이 먼저 떠오른다.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땅 한 마지가 없어서, 부모님은 이른 봄이면 논 주인들이 농사짓기 꺼리는 돌 눈이나 물대기 힘든 눈을 빌려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땅을 일구셨다. 돌들을 골라내고, 밤새워 물을 대고, 손에 피가 나도록 땅을 고른 후 농사를 지셨는데 그렇게 해도 가을 추수 후 땅 주인에게 약속한 곡식을 주고 나면 삶은 늘 고만고만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은 죽기 전 당신 이름으로 된 논 20마지기를 가지는 것이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우리 집 가훈은 친정집 대문을 들어서 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었고, 아버지는 30여 년 동안 당뇨 합병증으로 여러 번 생사의 갈림길에 섰음에도 오뎅이처럼 일어나 일을 하셨다. 그렇게 논 20마지기를 당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새로운 집에서 몇 년을 사신 아버지는 6년 전, 모내기한 눈에 물 보러 가다가 넘어져서 돌아가셨다.

5월이 되고 못자리에 모들이 성큼 성큼 자라나면 반대로 내 마음은 조마조마해진다. 어느 날 아침, 내 책가방이 사라지는 때가 왔기 때문이다. 저녁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내일부터 모내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날부터 큰딸인 나는 등교할 수 없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두 번의 중참에 점심밥을 해서 이고 들고 모내기하는 논으로 가져가야 했다.

밤새 고민에 싸여 내 책가방을 숨겨놓고 까무룩 잠이 들고 깨면 내가 숨겨놓은 책가방이 부모님의 손에 의해 다른 곳으로 숨겨지고 없는 거다. “내 가방 내놔라~. 학교 갈까다.” 울고불고 난리브루스를 쳐도 나만 안 되는 거다. 그 난리가 엄마가 봐줄 수 있는 선을 넘으면 매타작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줄행랑을 친다.

나는 뛰다고 뛰고 있는데 왕년에 달리기 선수였다는 엄마에게 꼭 잡히고 만다. 혼이 나고 슬퍼지면 집 뒷산에 오른다. 동네 친구들이 큰 길로 등교하는 걸 보며 또 다시 눈물 바람이 이는데, 맏이로 태어난 나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그 놈의 모내기가 정글정글하게 싫었다. 나의 신세한탄이 중반쯤 이르렀을 때, 아침나절 못자리에서 모를 뽑고 오신 아버지는 내가 있는 산을 향해, “김미경, 빨리 내려와 밥 안 하노!” 고함을 치셨다. 인생사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 없구나, 마지막 푸념을 하며 산에서 내려오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새참으로 나갈



고구마를 찌서 빨간 고무대야에 넣는다.

한 손엔 막걸리 주전자가 들려있다. 멀기도 먼 모내기 눈을 내가 걸어간다. 눈은 툭툭 붓고, 작은 체구에 걸친 몸빼바지가 간간히 부는 바람에 나부낀다. 손바닥만 한 고무신에 큰 구름 마냥 큰 대야가 머리를 덮고 있다. 새참을 모내기 눈에 가져다 두고 얼른 그 길을 돌아나온다. 다시 집에 도착해 밥을 하고 아침에 엄마가 양념해 둔 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밀반찬을 담고 스텐 그릇에 밥을 담으면 고무대야가 다시 가득이다.

이 큰 짐을 머리에 얹어 줄 사람이 없으니 끙끙거리며 마루에 고무대야를 올려 두곤 그 밑에 쪼그리고 앉는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흰 수건을 파리 틀어 머리에 올리고 입으로 '하나, 둘' 구령해가며 마룻바닥에서 나의 머리 위로 대야를 올려놓는다. 그렇게 십리길을 쉬지 않고 눈까지 가야 했다. 조금 걸자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손에 쥐가 몇 번씩 오르내려도 한번에 가야 한다. 힘들다고 잠깐 내려놓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다시 머리에 올리기가 힘이 든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칭찬 한마디 없던 부모님. 오히려 밥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뭘 하다 이제 왔노?" 혼썰이다. 기진맥진해서 대야를 내려놓으니 머리가 멍, 눈물까지 핑 돈다. 어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풀밭에 누워, 쥐가 난 팔과 다리를 주무르다 보면 또 오후 새참 시간이다. 그렇게 숨 가쁘게 반나절을 보내고 나면 나를 기다리는 건 밀린 설거지와 빨래 그리고 청소인데 빨래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오직 흰 속옷만을 고집했던 아버지는 꼭 삶아서 속옷을 빨게 하셨고, 엄마 역시 걸레와 행주를 새하얀 걸 써서, 조금이라도 때가 묻어 있으면 다시 빨아 오라고 내 등을 떠미셨다.

밤 9시, 어둑어둑해지면 부모님은 소들에게 먹일 풀을 싣고 오셨



다. 저 먼 들에서도 들리는 우리 집 경운기 소리를 신호로 재빨리 아버지 밭은 차게, 엄마 밭은 따뜻하게 유지하고 승능을 뜨겁게 끓여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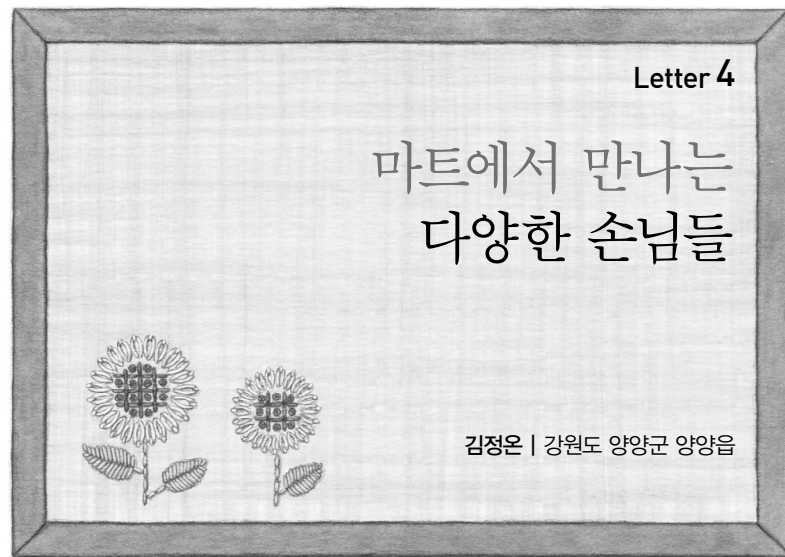
종일 놀고 와도 부모님께 인사 잘하고 말 예쁘게 하는 여동생은 사랑을 받았지만, 진중일 일에 치인 나는 입이 땀 발 나와 있다고 야단 맞기 일쑤였다. 나는 그때마다 태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워진다면 절대 말이로!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모내기철이 지나면 등교를 할 수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였다. 담임 선생님이셨던 여선생님은 내가 당신의 교직 생활에서 출석부의 빨간 줄을 굵게 한 최초의 아이라며 나를 나쁜 아이라고 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회초리로 나를 때리셨는데 선생님의 더 큰 보복은 고등학교 갈 때였다. 입학 원서를 적어야 했는데, 내가 희망한 학교를 적어주지 않으셨다.

모내기철이 되면 부모님이 숨긴 나의 책가방과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의 미움으로 가슴 한쪽이 아려온다.

올해 <국제시장>이란 영화를 보며 말이의 설움이 다시 떠올랐다. 주인공이 아버지의 영전 사진을 보며 “아버지, 너무 힘들었어요” 하며 우는데 덩달아 내 기억도 떠올랐다.

아버지 살아 게실 적 일이다. 나는 “아버지, 만이라서 힘들어 죽겠어요” 소리 지르며 울었는데, 부모가 되고 자식들 키워보니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땅 한 평 없는 집에서, 자식들 굶기지 않기 위해 사셨던 아버지. 죽는 순간까지 약을 먹으며 눈에서 일하신 아버지. 이젠 저 하늘에서 아버지가 편하셨으면 좋겠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마트에서 반찬 코너와 수산 코너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 3년 동안은 자리 잡기 위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일에만 매달렸다. 7년이 지난 지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보니 고객들의 표정도 보이고 말투도 들리고 차림새도 보인다.

그 속에서 나는 인생 공부를 한다. 명품 표정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세상 고민은 다 짊어진 것 같은 표정, 화난 표정, 짜증난 표정의 사람들이 많다. 웃는 표정은 극히 드물다. 차림새를 보면 단아하고 고운데 표정은 삶에 찌들어 온갖 고통을 다 안고 가는 표정도 있고, 행색은 남루하나 아주 인자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는 얼굴도 있다.

무표정에 화난 것 같은 얼굴을 보면서 조금만 웃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펼쳐버리기도 전에, 자반고등어 한 손 달라면서 간 한 거냐?

안 한 거냐? 간을 더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짜냐, 안 짜냐? 씻어야 되느냐 안 씻어도 되느냐? 며칠까지 두고 먹어야 하느냐? 냉동 보관은 며칠까지 두어야 하느냐? 내일 아침 먹을 건데, 냉장 보관해야 하는 건지 냉동 보관해야 하는 건지 한참 따져 묻더니, “이 물건 정말 괜찮은 거예요? 먹어도 돼요?” 또 묻는다. 뭘 몰라 묻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제법 있는 주부들도 꼬치꼬치 묻는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손님은 문 열기가 무섭게 들어와서는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신경질적으로 따진다. 마치 싸움을 하러 온 사람처럼 공격적이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대답을 안 한다고 짜증을 내고, 몇 마디하면 건방지게 말대꾸한다고 기분 나쁘다며 민원을 넣는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못난 사람은 개인감정으로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큰소리치고 화풀이 하는 것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데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사람 취급 안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그저 참고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도 그 공간을 벗어나면 사랑받는 아내요, 엄마요, 형제요, 자식인 것을 왜 공공장소에 와서 언성을 높이는 것일까?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절대 하대 받을 이유가 없는데 말이다.

나는 아들만 둘이다. 성인이 되어 사리판단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이지만 어른들 눈살 찌푸리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부모 눈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니 잔소리가 되는 것 같다.

어른들 앞에선 이성간의 애정 표현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부끄러움도 사라지는 건 아닐 텐데, 해도 해도 너무나 행동들을 할 때는 쥐어박고 싶은 심정이다.

가슴이 풍만한 여성이 속옷 같은 옷을 입고 남자 직원들 앞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시선 처리가 보통 곤란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피서철 피서객들이라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 끌어안는 것은 예삿일이고 사람들 앞에서 뽀뽀하는 이들도 많다.

하루는 내 나이 정도로 보이는 커플이 왔는데 젊은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말려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넓은 매장을 돌아다니며 뽀뽀하고 어쩔 줄 모르는 눈빛 교환을 하더니 계산대 앞 딸 같은 여직원들이며 온갖 손님들이 많은데서 또다시 뽀뽀를 하니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여름이면 이런 손님들이 유난히 많다. 타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려니 하고 눈여겨보지 않으려고 해도 해가 지날수록 행동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1세기를 살면서 19세기 사고를 가졌다고 나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데, 나는 바꾸기도 싫고 변하기도 싫다. 톱니바퀴 돌듯이 세상이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갔으면 좋겠다. 동방예의지국이 무색하지 않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은 한 여자 분이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와서는 라벨지에 붙은 가격표가 안 보인다며 있는 대로 짜증을 냈다. 어이가 없어 쳐다보면 왜 쳐다보냐며 또 화를 낸다. 지난여름에는 선글라스 쓰고 모자를 꼭 눌러쓰고 황사마스크까지 쓰고 와서 누군가 인사를 했다. 누군지 알 수 없어 애매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본인의 이름을 말하며 섭섭해했다. 후배였다.

실내에 들어 올 때는 선글라스를 벗고 들어왔으면 정말 좋겠다. 황사마스크 쓰고 말을 하면 잘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화를 내는 손님들을 보면 나도 화를 내고 싶다.

오늘도 나는 단아하고 고운 고객을 기대하며 출근을 한다.



**안** 산시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한 지 3개월이 채 안 되지만 이 일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알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현황조사를 합니다. 현황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이를 위해 어르신들의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합니다. 또, 수시로 안부전화도 드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지도 파악해서 필요한 서비스와 연결시켜 드립니다.

제가 맡고 있는 어르신은 모두 스물여덟 분이신데, 일주일에 1번 방문하고, 2번 정도 안부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안산시에서 저 같은 생

활관리사들이 대략 1,200여 명의 어르신을 찾아뵙고 있죠. 사실 이보다 더 많이 계신데, 독거노인이어도 아직 연세가 그리 많지 않거나, 방문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워낙 많으셔서 서너 집 건너 한 집 정도가 독거노인 어르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을 찾아볼 때는 시간과 요일을 정해놓고 갑니다. 하지만 항상 집에 계시는 건 아니에요. 병원에 가거나, 무료급식을 타러 가거나, 또 파지를 줍기 위해 집을 비우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땐 계속 때까지 여러 번 가고 또 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바깥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아프거나, 치매가 있어서, 아니면 여러 사람 만나기가 꺼려져서 집에만 계시는 은둔형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생활관리사가 없으면 말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하루종일 TV나 라디오만 옆에 두고 계시지요. 하지만 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또래돌보미'나 '노노케어'라고 하는 연세가 비슷한 어르신 2명이 찾아가 말벗도 해드리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서비스를 연계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어르신들 중에 틀니나 안경, 돋보기 등이 필요한 분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께는 안산시의 복지관들을 연결시켜 최대한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가끔 생활관리사인 저희한테 우리가 필요한 건 돈, 쌀, 반찬이라면서 그런 걸 줄 게 아니면 오지 말라고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고마워하시면서, 저희가 오는 날에 일부러 기다렸다가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럴 때 저희는 힘들어도 벅찬 마음을 느낍니다. 힘은 들지만 정말 보람된 일이에요. 함께 일하는 생활관리사 여러분, 더위에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파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내**가 국민학교에 다녔던 40여 년 전, 우리 집에도 시퍼렇게 날이 선 크고 두꺼운 작두가 하나 있었다. 우리 집 소먹이는 모두 이 작두를 이용해서 썰어졌다. 그 여물 부스러기를 커다란 가마솥에 넣고 푹 끓여서 소죽통으로 퍼서 옮겨 주면 된다.

우리 집에서 작두가 놓인 곳은 여닫을 수 있는 작은 문조차 없는 허름한 창고 입구였다. 가을부터 늦은 봄까지, 우리는 그곳에서 작두로 여물을 썰어서 수북이 쌓아 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삼태기로 두어 번 운반해서 가마솥에 끓이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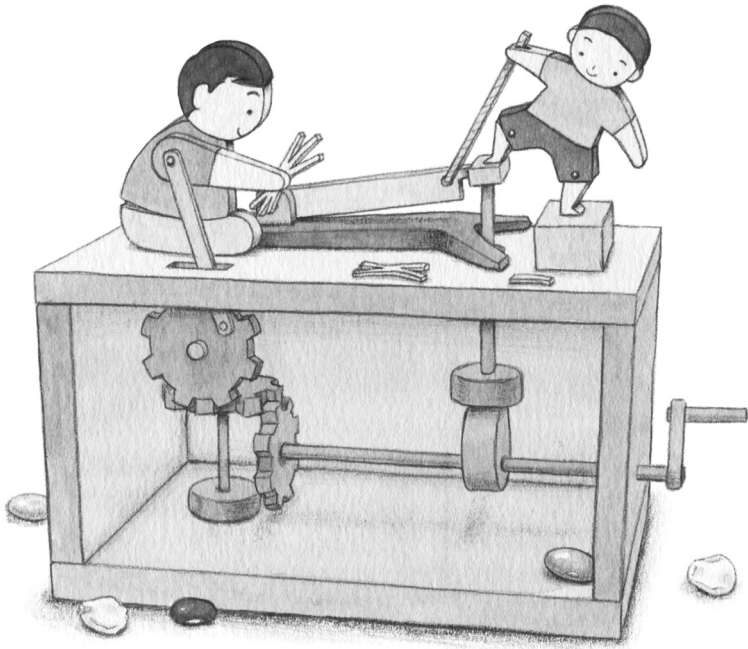
다른 집들은 가볍고 썰기 편한 벧짚을 주로 사용했으나, 우리 집은 논이라고는 단 한 마지기도 없었기 때문에, 옥수수대나 콩대, 메밀대를 잘라서 소의 먹이로 사용했다. 그래서 가을걷이가 끝나면 우리는

자른 옥수수대를 집까지 지게로 저 와서, 커다란 날가리를 만들어 놓아야 했다. 그 옆에는 콩과 팥을 털고 남은 대도 한 단씩 묶어서 별도로 날가리를 만들었다. 시골의 겨울은 길고도 혹독하기에, 소를 위해 고구마 줄거리도 모았다.

무쇠 작두는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혼자서는 여물을 썰 수 없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큰형을 불러서 작두를 밟으라고 하셨다. 시간이 점차 흘러서 작은 형이 하고 그 다음 차례로 나도 작두로 썰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나는 아버지가 부르시면 작두 끝에 놓인 계단 높이의 돌맹이 위에 올라서서 작두날 끝에 박혀 있는 어른 손 한 뼘 정도 되는 나무 발판에 한쪽 발을 올려놓고, 같은 쪽 손으로는 작두 끝에 달린 끈을 꼭 붙잡고 바른 자세로 섰다. 그 끈은 목적인 작두날 끝의 나무 발판에 발을 살짝 댄 채, 손의 힘으로 작두를 번쩍 들어 올리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힘을 뺀 발과 동시에 작두날을 끈으로 당겨 위로 들어 올리면 아버지는 일정한 시간과 간격으로 여물을 넣어 주신다. 그러면 나는 두 눈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에, 작두날을 아래로 힘껏 밟곤 했다.

작두를 밟을 때는 단 한번 만에 여물이 싹둑 잘려나가도록 발에 온 힘을 실어서 내리 밟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덜 잘린 것 때문에 아버지가 여물을 앞으로 잡아당기거나 다시 작두 속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 아버지는 곡물대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쥐어서 양쪽 손가락 끝이 서로 맞닿을 정도의 굵기로 여물을 붙잡고 조금씩 작두 속으로 집어 넣으셨다. 여물을 썰 때는 넣어드는 사람의 손이 매우 위험하므로 작두 밟는 사람이나 여물을 넣어드는 사람이나 모두 긴장해야 한다.



그 시절 시골 농촌에는 손가락이 한두 마디씩 절단된 어른들이 간혹 계셨는데, 대부분이 작두로 여물을 썰다가 생긴 사고였다. 아주 간혹, 나처럼 어린 애들도 그렇게 사고를 당했다. 어른들이 출타하시고 아무도 없을 때, 애들끼리 어른 흉내를 내면서 놀다가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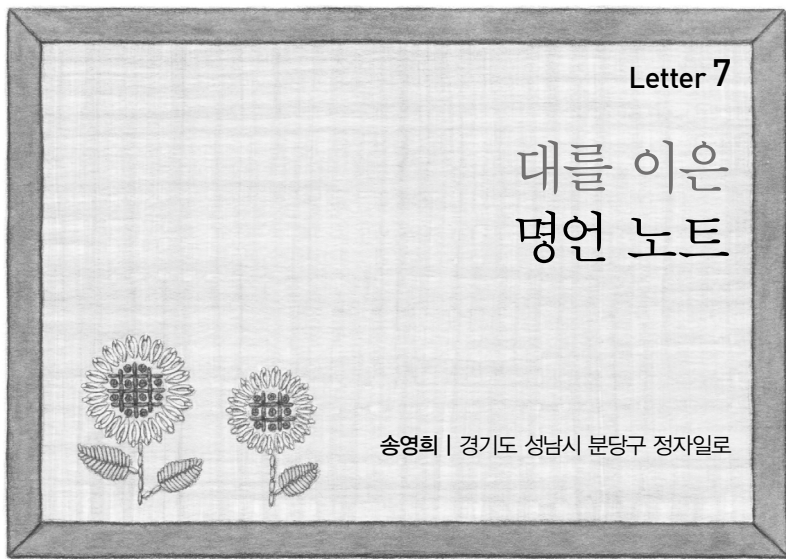
그런 일 때문에 아버지는 여물을 다 썰고 난 뒤에는 반드시 작뎃날이 벌어지지 않게 끈으로 꼭 묶은 뒤에 한쪽 벽에 비스듬히 세워 놓곤 하셨다. 아버지는 여물을 작두 안으로 안전하게 잘 넣었을 때는 “자!” 또는 “싯!” 소리를 크게 내곤 하셨다. 그 소리는 모든 조건이 안전하니 힘껏 작두를 밟으라는 신호였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아버

지의 목소리만 듣고서 작두를 밟을 수 있겠는가. 아버지의 목소리 신호가 있어도 눈으로 아버지의 손이 안전한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작두의 날을 내리 밟곤 했다. 아무리 질긴 고구마 줄거리나 굵은 옥수수대도 발로 힘껏 내려밟는 작두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작뎃날을 밟을 때마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잘려나간 굵고 가는 수많은 옥수수대의 하얀 단면이 옆으로 일제히 넘어진다. 동시에 다시 발판에 달린 끈을 위로 잡아당겨서 작뎃날을 위로 들어 올리면, 아버지는 또다시 반자동 기계인간처럼 여물을 들이미셨다.

딱딱한 옥수수대를 작두에 넣어줄 때는 그래도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고구마 줄거리나 칡넝쿨 같은 덩불 종류를 썰 때는 특히 조심해야 했다. 이것들은 손으로 꼭꼭 멩쳐서 작두 안으로 집어넣기에 기껏 한두 번 자르고 난 뒤에는 잠시 멈추고, 작두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손으로 넝쿨 뒷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여물을 거의 다 썰고 난 뒤에 마지막 남은 힘없는 부스러기를 자를 때이다. 이때가 작뎃날에 사람 손가락이 가장 가까이에 다가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소의 여물을 다 썰고 나면 아버지는 옥수수대와 콩대, 메밀짚, 벼짚, 고구마줄기 등을 골고루 섞어놓으셨다. 소에게 다양한 종류의 여물을 먹게 하려는 배려였다.

나와 동생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여물을 썰 때 떨어져 나온 콩과 옥수수 낱알들을 찌그러진 냄비에다가 신속하게 주워 담았다. 그것을 모아 소죽을 끓이고 난 뒤에 부지깽이로 재를 끄집어내어 그 위에 볶아 먹곤 했다. 그때 하던 작두질과 몰래 주워온 곡물을 볶아서 먹던 군것질이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바로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다.



나는 3년 전에 첫 출근하는 아들에게 한 권의 노트를 주었다. 직장에 들어가면 쥐야지 마음먹고 10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명언이나 좋은 글귀를 메모한 노트였다.

아들은 이 노트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차라리 돈을 줬으면 그게 더 기뻐서 텐데’ 하는 표정으로 명언 노트를 책상 위에 던진 채, 시큰둥한 모습을 보였다. 나 또한 아들의 모습에 실망했지만 ‘언젠가는 보겠지’ 하고는 마음을 비웠다.

노트 마지막 부분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글을 읽고, 그 에너지가 너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어 좋은 생각을 키워주면 좋겠다. 아들의 마음이 엄마가 모아놓은 따뜻한 말로 지혜로워지고, 이 노트가 너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줬으면 한다’라고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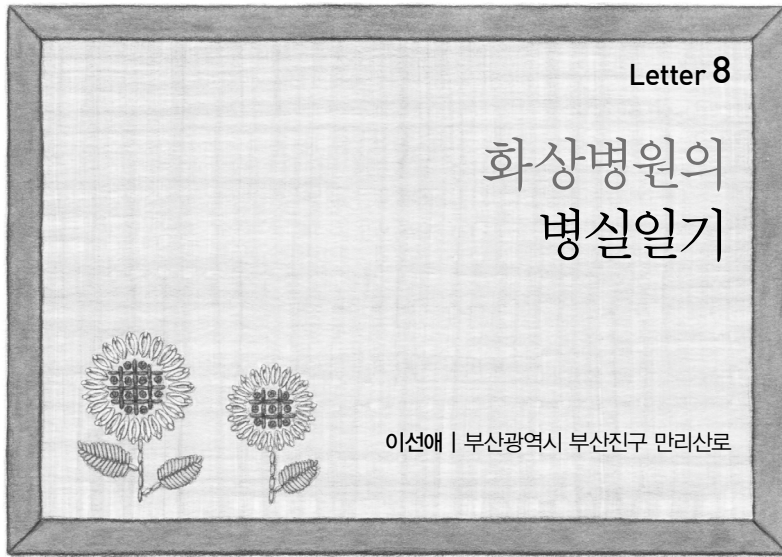
어두었다. 나는 정말 이렇게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책 속에 많은 문장들을 모아둔 거였다.

그런데 며칠 전 일이다. 아들의 방 앞을 지나치다가 무심코 열린 문 사이로 아들을 보게 됐는데 글썽 침대에 누워 있는 아들이 내 노트를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책상 위에 두툼한 먼지가 쌓인 채 잊힐 줄 알았는데… 순간, 마음이 울컥했다. 내색은 안했지만, 아들은 직장생활이 힘들 때마다 이 노트를 읽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 내가 10년 동안 노트를 써온 보람이 있구나! 아들이, 누구나 어려움은 있단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헤쳐 나갈 지는 너의 노력과 지혜로움이 필요하단다. 너는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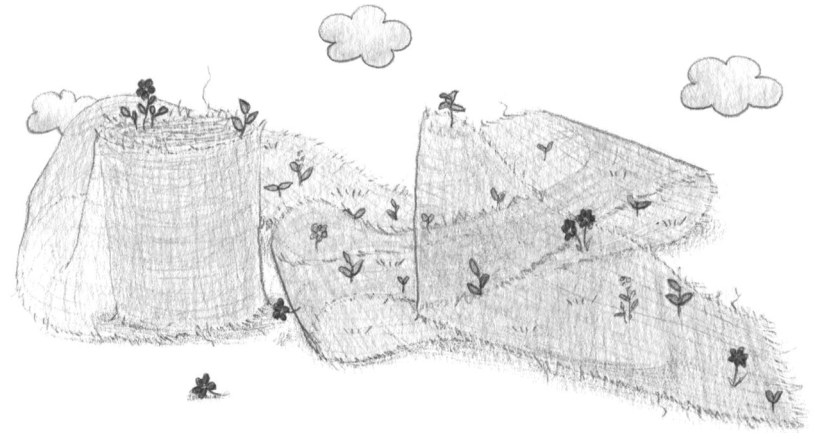
마음속으로 빌며, 아들의 방문을 살며시 닫아주었다. 닫힌 방문 사이로 지혜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여기는 14인 병실. 병실에 놓인 휠체어 3개로는 부족하다. 발과 다리를 다친 환자가 많다. 어떤 이는 휠체어를 뺏길까봐 계속 앉아 있어 눈충을 받는다. 이곳은 화상병원이다. 부산, 경남, 마산, 창원, 거제도, 울산 등지에서 온 화상 환자들이 3층, 5층 병실에 가득하다. 1인실, 2인실, 3인실, 6인실, 10인실, 14인실, 병실이 빌새가 없다.

옆 병실은 남자 병실이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이들이 대부분이다. 또 그 옆 병실은 아기 병실이다. 안타깝고 안쓰럽다. 엄마도 아이들도 고생이다. 모두 눈 깜짝할 사이에 화상을 입고 아파하고 괴로워한다. 국, 라면, 커피, 무선주전자, 압력밥솥 추에 텐 아기들을 볼 때면 나도 환자지만 웬지 더 안타깝다. 피부가 약해 자연적으로 낫



는 경우보다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피부이식을 했을 경우엔 성인이 될 때까지 재활운동을 해야 한다.

517호 우리 방 화상 환우들 14명 중 8명이 발과 다리를 데어 치료중이고 휠체어에 의지해 화장실 출입을 해야 한다. 65세의 울산에서 오신 분은 압력밥솥에 묵은 시래기를 삶다 시래기가 불어나며 공기구멍을 막아 그 압력에 밥솥이 폭발하여 얼굴, 목, 몸통, 팔을 심하게 데어 아주 고생이시다. 또 45세의 아주머니는 전기장판을 고온으로 하고 폭 자다 서서히 데었다고 했다. 피부이식을 8번이나 하며 3개월 넘게 입원치료 중에 있다. 또 찜질팩이나 썬뽀를 하다 데인 분들도 많은데, 집에서 썬뽀를 뜨다 2차 감염이 되어 피부이식을 한 할머니도 계시다. 또 찜질방 좌욕기가 고장 나 심하게 달궈진 것을 모르고 앉았다가 두 엉덩이가 익어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치료 때마다 민망해 하는 아주머니가 계시다. 집에 불이 나 화상을 입어 손가락, 이마, 귀, 다리, 목을 치료하다가 손가락을 잃은 분도 있다. 일반병원에서 2주간 치료받다 이곳에 와 피부이식을 하고 이제는 회복기에 돌입한 이



도 계시다. 또 통닭집을 하는 데, 미끄러지는 바람에 끓는 기름에 덴 분도 있다.

화상을 입으면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고 화상병원에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흉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이들의 경우는 어른들의 부주의로 고생을 한다. 한번 데이면 보통 한 달 이상 입원이다. 피부는 계속 자라는데 이식한 부분의 피부는 자라지 않기에 성인이 될 때까지 재활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우리 방엔 나를 포함한 3명이 산재환자다.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장화 신고 일하다 펄펄 끓는 국이 장화에 쏟아져 들어가 화상을 입은 2명의 환자는 자연치유가 안 돼 피부이식을 하고 회복중이다.

나는 마트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날은 내가 점심식사 당번이라 소고기국을 끓였다. 조금 높은 곳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던 국솥을 옮기다가 그 국을 내 몸에 들이부어 가슴과 배, 두 팔, 허벅지, 엉덩이, 발목까지 3도 화상을 입어 양팔 피부이식 후 두 달 가까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끔찍한 화상을 입고 곧바로 119의 도움을 받아 화상병원으로 바로 왔으면 좋았을 것을 당황한 나머지 근처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오는 바람에 상처가 깊어졌다.

이곳에 있으면서 알게 된 '산정특례 의료비'라는 것이 있는데, 실비보험을 들지 않은 중증화상환자일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도움을 받을 수 있단다. 입원해 있는 병원의 원무과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한 번 물어보면 될 것이다.

오늘도 아기 병실에 한 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기가 들어왔다. 요즘 정수기 말고 좀 오래된 정수기의 뜨거운 물 나오는 곳에 머리를 들이 밀어 화상을 입었다. 머리와 이마가 붕대로 감싸져 있다. 치료 잘 받고 흉터도 없이 까만 머리도 잘 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지난 주말, 2남 2녀인 저희 가족은 모처럼 혼자 사시는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는 곳은 지리산 둘레길 3코스 시작 지점인 '인월'이란 곳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지로 청정지역이자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해 있어 귀농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귀농인들이 동네에 속속 정착하면서 마을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학교에 아이들도 많아졌고, 식당에도 손님이 느니 지역 상권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이 마을을 도시적인 감각으로 바꾸어가는 모습도 아주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난 주말, 아버지를 찾아뵈었을 때 일부 귀농인들의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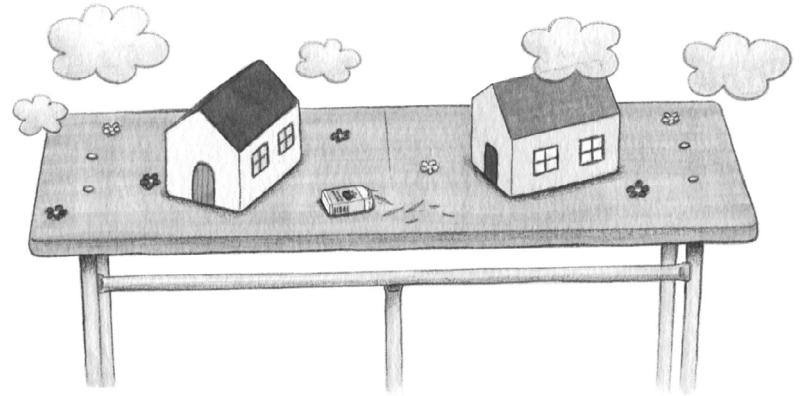
귀농인 5명이 몇 년 전부터 동네 땅을 시세보다 높게 사들이더니 공동주택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원래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토박이 분들과 조금씩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자기네 땅의 경계를 구분 지어서 조금이라도 마을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어르신들께도 욕설을 퍼붓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적은 없으시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하다’ 싶으면서도 그냥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아버지가 밭을 일구러 차를 타고 가시다가 이 귀농인들이 세워놓은 차와 농기계 때문에 가로막히는 상황이 됐어요. 분명히 사람과 차가 드나드는 도로인데 자신들 차를 세워놓고 밭에서 일하며, 아버지가 ‘차 좀 치워 달라’고 하시니까 “우리 일하는 거 안 보여요. 저리로 돌아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며 오히려 성을 내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작을 조그맣게 하시는 아버지께 ‘그 정도로 농사지어서 누구 입에 붙일 거냐고 비아냥거렸답니다.

참고로 그 땅은 비록 작은 경작지지만 먼저 가신 어머니도 모셔져 있고 아버지의 가묘도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저희 4남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주기 위해 아버지가 땀과 노력으로 일구신 땅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중한 공간을 함부로 말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밭에 있는 나무 때문에 자기네들 농작물이 안 자란다면서 다짜고짜 나무를 치우라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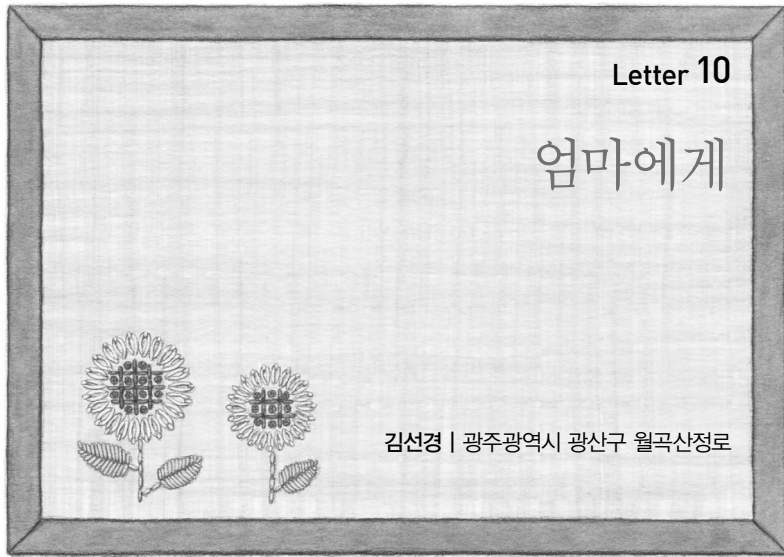
결국 저희 112에 전화를 해서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 출동한 경찰들도 이런 귀농인들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골머리만 앓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대요.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이 주변 땅을 다 매입해서 지적도 상으로도 차나 농기계가 다니는 이 길이 개인 사유지로 돼 있으니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데 저희라고 뭘 어찌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자꾸 다루시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참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푹푹 뭉쳐서 사는 귀농인들 때문에 도시생활이 힘들어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도 높게 형성돼 버린 땅값 때문에 돌아선다고 합니다. 귀농을 선택한 분들 중에는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은 농사도 모범적으로 짓고 마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막돼먹은 몇몇 사람들 때문에 모든 귀농인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은 알까요?

귀농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주민들과 어울려서 잘 지내시는 게 농사를 잘 짓는 것보다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야 서로 왕래도 하고, 분위기가 두루뭇술해져서 살기 좋고 편안한 마을이 되는 거죠. 또 이런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농작물의 결실도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고생 김선경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부모님께 편지 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와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을 맞으며 부모님께 편지를 써본 적이 있지만 고등학생이 된 지금, 부모님께 새삼 편지를 쓴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참을 책상에 턱을 괴고 뭐라고 써야 하나 생각하다 엄마께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매일 여성시대를 들으며 일을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제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열시 넘어 집에 들어오면 엄마는 잠들어 계십니다. 현관문 소리에 벌떡 일어나시며 충혈된 눈으로 “어머, 깜빡 잠이 들었네” 하며 주방으로 가서 간식을 챙겨주시는 엄마. 엄마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엄마, 오늘은 간식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주무세요.”

“왜? 배 안 고프니?”

“네, 괜찮아요.”

“그래도 요기라도 하고 자야지?”

저는 엄마를 생각해서 한 말인데 엄마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 엄마께 편지를 씁니다.

엄마, 사랑하는 엄마! 저 큰딸이에요. 엄마한테 할 말은 많은데 무슨 말부터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앞뒤가 안 맞더라도 이해해주실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왔지요. 집에 엄마가 안 계신 줄 알고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계셨어요. 사실 엄마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게 싫었어요. 엄마가 농사짓다 보니 얼굴에 기미도 많고 햇볕에 탄 그 모습을 친구들이 본다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도 모르고 엄마는 친구들에게 이것저것 간식을 챙겨주시느라 바빴습니다. 친구들은 맛있다고 먹었어요. 그 후로 저는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이 창피해서 친구들한테는 회사에 다닌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사춘기 때는 공연히 엄마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말대꾸하고, 가끔씩 학원도 빠지고 친구들과하고 노래방에도 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 참 못된 딸이에요. 엄마를 엄청 속상하게 했으니까요.

엄마한테 말대꾸하다 아빠한테 종아리 맞고 올라 잠들었던 어느 날 밤, 엄마는 제 종아리에 찜질을 해주며 울고 계셨습니다. 그때 엄마의 뜨거운 눈물이 제 다리에 떨어졌습니다. 눈을 감고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저는 엄마의 뜨거운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느덧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보니 조금 철이 들어나봐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학교에서 엄마 생각 많이 해요. 동생들도 눈에 어른거리요. 공부만 열심히 해야 하는 데 이려고 있네요.

지난주 엄마 머리 염색해 드릴 때 ‘울 엄마 머리에 흰머리가 이렇게 많은 줄이야’ 감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엄마랑 슈퍼에 갔다 오면서 잠깐 손을 잡았는데 엄마 손이 너무 거칠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손바닥이 왜 이래?”

그러자 엄마는 아무렇지 않다는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습진이 심하잖니. 물을 많이 만지는 계절이 오면 더 심해져서 그래. 그러다가 또 괜찮아져.”

“약은 발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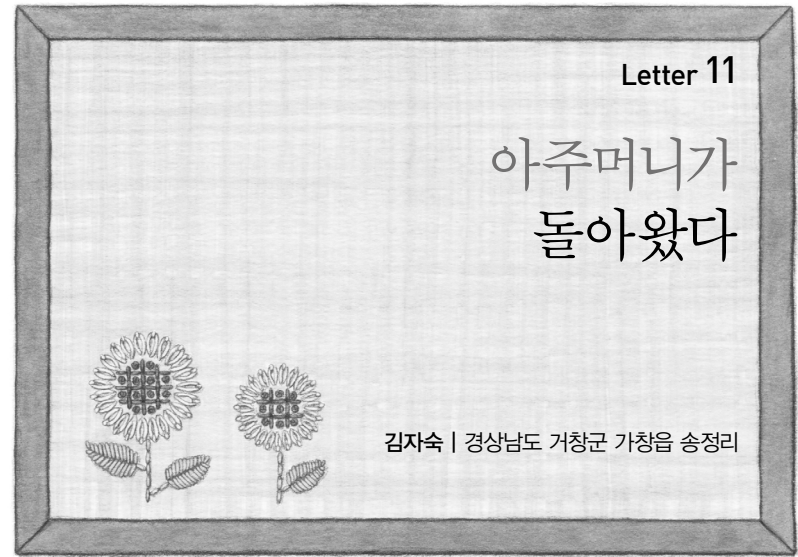
“바빠서 병원에도 약국에도 못 갔네.”

엄마, 아무리 바빠셔도 엄마 몸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건강검진 결과에 빈혈이 좀 있다고 했는데 철분제 꼬박꼬박 드시고 계신가요? 고등학생이 된 후로 엄마와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네요. 저와 얘기하는 도중에 금방 코를 골며 주무시는 엄마. 잠깐 졸면서 잠꼬대까지 하시는 걸 보며 엄마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 속상해요.

엄마, 이제 교복은 주말에 제가 빨게요. 동생 것도 제가 빨 테니 교복 빨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농사일 쉬엄쉬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건강하셔야 저희 가족이 행복하니까요.

엄마, 사랑해요! 항상 건강하셔야 해요.

- 큰딸 김선경 올림



“꾸 옥 꾸~ 꾸 꾸옥 꾸~ 꾸.”

전깃줄에 앉은 산비둘기가 울어댄다. 이에 질세라 맞은 편 산등성이에서 삐꾸기가 울어댄다. 참새와 박새들이 수련이 피어 있는 우리 집 수조에 앉아 목을 축이고 간다. 땅거미가 질 때면 뒷산에서 고라니가 짹을 찾아 울고 그 울음소리에 맞춰 우리 집 뜰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들이 이어 핀다.

내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는 9년째 접어들었다. 지병이 있어 건강이 좋아질까 싶어서 여기에 자리 잡았다. 집은 작지만 텃밭이 넓어 각종 채소와 과일들을 심었다. 이곳 텃밭은 내 직장이다. 300여 평이 넘는데, 집 입구 철재 아치 위로 으름 덩굴과 머루 덩굴이 있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네를 매어 놓아 주말이면 외손녀와 또

래 친구들이 모여 들어 그네도 탄다. 우리 집 그늘이 쉼터인 셈이다.

우리 집과 담 하나를 경계로 하는 이웃이 있다. 그 댁에는 나보다 14살이 많은 77세의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데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다. 자주 넘어지셔서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 드려야 한다. 내가 이사 오기 전에는 혼자 외롭게 사셨는데 우리가 와서 사람 사는 것 같이라며 좋아하셨다. 슬하에 딸 여섯에 아들 한 명이 있지만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찾아오지 못한다. 혼자서 생활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다.

아주머니는 나를 '졸리'라고 부른다. 졸리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미니핀의 이름이다.

아주머니 집은 아주 허술해서 '이런 집에 사는 사람도 있구나' 싶을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나 하여 여기저기 찾아가서 알아보았다. 자식들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내가 나서서 서류 접수를 해드렸다. 아주머니는 "이게 어디야! 약값도 따로 받고, 세금도 면제되고, 쌀도 싸게 살 수 있으니 말이야" 좋아하셨다. 그렇게 8년을 함께 지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내가 기력이 떨어져서 아주머니를 돌볼 수가 없어 그분의 부산에 있는 딸들이 모셔갔다. 2년 전부터 대소변 실수를 하시더니 그즈음 누워서 일을 보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한겨울, 아주머니 집 전화기의 단축버튼을 눌러 우리 집에 전화를 하셔서 새벽에 털모자 쓰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달려가 보면, 혼자 누워 일을 보고 그걸 치우지 못해 찢찢매고 계셨다. 그러기를 2년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딸들이 모셔 간 것이다.

그런데 몇 달 전, 아주머니가 다시 집으로 오셨다.

"아이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아파트에서 못 살겠더라."

"아이고, 아지매. 뭐 하러 왔소? 나는 이제 아지매 못 도와드린다. 이제 농사철이라 나는 바쁘다."

아주머니가 돌아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주머니 집에 가보니 아주머니가 없었다. 이상하다 싶어 한참을 찾아보아도 아무 곳에도 없었다. 안 되겠다 싶어 딸기 농사짓는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했다.

그 집 아들과 같이 아주머니를 찾아 나섰다. 한참을 찾는데 그 집 아들이 "여기요, 여기" 큰소리로 불러 가보니 엄한 곳에서 죽은 사람처럼 꼭 박혀 있었다. 온몸이 오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들이 들쳐 업고 우리 집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샤워기로 목욕을 시키고 난 후 아들이 데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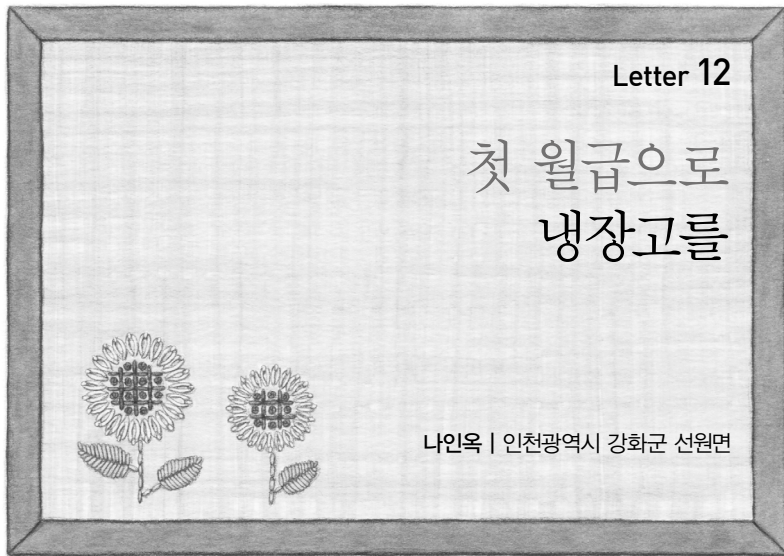
그리고 며칠 지나서 아주머니가 다시 집에 오셨다.

"아지매, 그때 거기는 뭐 하러 들어갔는데?"

"응, 가족나무 잎 꺾으러 갔다."

아주머니 말에 어이가 없어 한숨만 나왔다. 아주머니는 시장하셨는지 "졸리야, 미안하다. 우리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우리 둘이 먹자" 하셨다.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은 한낮이다. 밖을 내다보니 아주머니는 으름나무 그늘 평상에 누워서 낮잠을 주무시고 우리 집 졸리도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다. 아주머니는 내가 나가 말동무도 해주고 밥도 함께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아주머니의 병이 씻은 듯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밭일도 하고 말이다. 뒷산에 빠꾸기가 한가로이 울어댄다.



**미**루다 미루다 큰마음 먹고 냉장고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다 비우고 소독하고 닦아 낸 다음 반찬통을 정리해서 넣고, 마무리로 냉장고 문짝을 닦았습니다. 마른 걸레를 들고 냉장고 문을 닦고 있다가 30년 전 어머니께서 냉장고를 정성스럽게 닦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경황없이 장례를 마쳤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큰오빠는 고향에 홀어머니와 동생들만 남겨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얼마 안 있어 회사에 사표를 내고 고향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올케언니와는 합의가 안 된 채 고향으로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온 올케언니는 그 후 한 번도 웃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싫어서였습니다.

늙은 어머니와 군에서 막 제대한 막내오빠 그리고 스무 살이던 저는

그렇게 큰오빠 부부와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있었지만 말이여서 그런지 큰오빠의 마음이 많이 무거웠나봅니다.

큰오빠 부부가 내려온 날부터 하루도 집안 분위기가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올케언니는 하루 종일 먹구름 낀 얼굴로 있었고 부부싸움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큰오빠는 안 먹던 술까지 먹고, 이런 분위기에 어린 동생들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큰오빠는 8남매의 맏이로 막내들에게겐 거의 부모 같았고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크면서 말대꾸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조용하고 근엄한 큰오빠 앞에는 저는 언제나 '차렷 자세'였습니다.

큰오빠와 살림을 합치고 나니 밥솥도 2개, 냉장고도 2개, 살림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냉장고 2대 쓰는 집이 흔하지만 그 시절엔 냉장고 있는 집도 그리 많지 않을 때라 어머니는 우리가 쓰던 냉장고와 밥솥을 벌이가 시원찮았던 다섯째 오빠에게 주었습니다.

시집살이가 싫었던 올케언니는 큰오빠와 매일 밤 부부싸움을 하였고, 어머니도 이러다 큰아들 잡겠다 싶어 큰오빠에게 서울로 다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도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던 날 아침, 큰언니가 살림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커다란 아이스박스를 하나 사오더니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을 아이스박스에 옮겨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불렀는지 집 앞에 와 있는 용달차에 살림을 하나 둘 싣기 시작했고, 음식을 다 비운 냉장고도 함께 실었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서 올케언니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던 저는 불쑥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큰오빠 앞이라는 것도 생각 안하고 저는 마루로 내려가 언니가 반찬통을 옮겨 놓은 큰 아이스박스를 번쩍 들어 마당에다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 필요 없으니 이



것도 가져가라”고 안에 있던 반찬통을 마당에 다 엮어버린 채 아이스박스를 대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놀라 “큰오빠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제 손을 잡아끌어 마루 끝에다 눌러 앉히셨습니다. 큰오빠나 올케언니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하였는지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냉장고를 대신할 아이스박스를 뒤엎어버리면서 언니의 시집 살이도, 하루도 조용할 날 없었던 큰오빠와의 짧았던 동거도 끝났습니다. 끝내 한마디 말 없는 큰오빠 부부를 대신해 용달차가 요란하게 ‘부릉부릉’ 소음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반찬과 깨진 그릇으로 뒤덮인 마당을 어머니는 말 없이 치우기만 하셨고 그 광경을 뒤늦게 본 막내오빠는 주먹으로 벽을 치며 울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동안 눈치 보며 지냈던 불안감이 더 컸던지, 늙은 어머니와 힘없는 막내들만 남겨진 그 시간 그 마당이 참 평화스러웠습니다.

말없이 각자 집안 정리를 하고 불같은 막내가 반찬가지를 마당에 엮어버린 탓에 달랑 된장찌개 하나만 올려놓고 조용한 식사를 마쳤습니다. 밥상을 물리며 막내오빠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했고, 저는 일단 휴학을 하고 취업을 하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반나절 동안의 아픔으로 우리 막내들은 성장하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막내오빠는 결심처럼 열심히 공부하며 일했고 저도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금융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첫 월급을 타는 날! 월급봉투의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빨간 내복 대신 어머니에게 냉장고를 사드렸습니다. 한 달 치 월급 전부가 냉장고 사는 데 쓰였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가 집에 들어올 때 어머니는 막내가 번 귀한 돈으로 냉장고를 샀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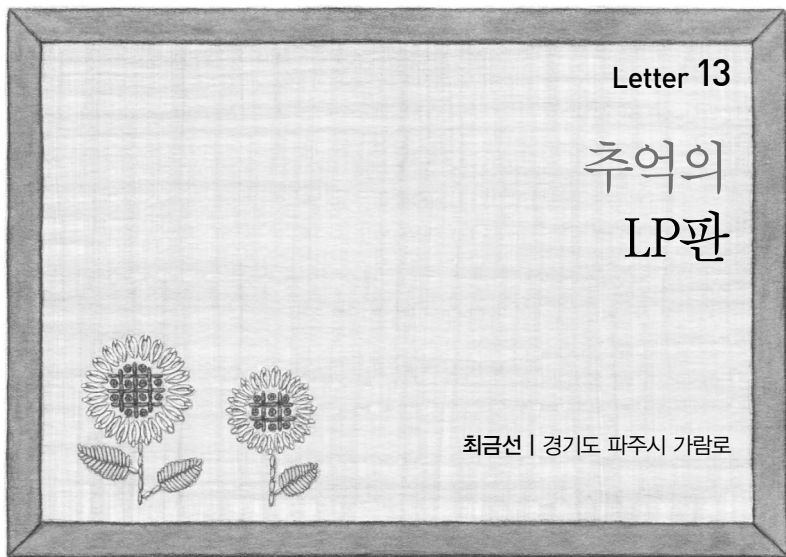
어머니는 “느거 아버지 죽고 없어, 다시 냉장고도 못 사고 사나보다 생각했는데,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돈을 벌었구나. 내가 이 냉장고는 죽을 때까지 잘 쓸까다” 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냉장고는 우리에게 아버지 대신으로 든든함을 주었고, 우리끼리도 잘살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으며, 큰오빠가 떠났던 날의 서러움을 씻어 주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는 그 냉장고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4년을 썼습니다.

그동안 막내오빠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살림을 이루었고, 저는 잠깐만 휴학하면 될 것 같았던 대학엔 복학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를 마련하고 오빠의 대학등록금을 도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냉장고에 우리가 먹을거리를 채워 놓으시며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하셨고, 행여 냉장고에 손자국이라도 남을까 닦고 또 닦으셨습니다. 마치 자개농을 닦듯 어머니에겐 그 어떤 가구보다 값비싸고 귀한 전자제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냉장고를 닦으시던 모습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가 지금 냉장고를 닦고 있는 모습이 어머니와 닮았습니다. 그때의 어머니만큼 애절함은 없으나 냉장고를 어루만지듯 막내딸의 노고를 어루만져주셨던 어머니. 어머니를 생각하며 저도 정성껏 냉장고를 닦아봅니다.



몇 달 전, 작은 아들이 휴대용 턴테이블을 경매 사이트에서 3만원에 낙찰받아서 사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에는 40년 가까이 된 LP판이 20장 정도 있어서 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LP판이라 지지직거리며 판이 튀기도 했지만 추억의 노래들이 흘러나오니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시집오기 전, 우리 집에는 LP판이 몇 백 장은 있었습니다. 딸 부잣집이었던 우리 집에는 동네 오빠들이 자주 놀러왔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동네 오빠들이 방학 때 내려오면서 당시에 유행하던 앨범을 사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사랑방은 그 당시 최신 음악과 유행하는 춤을 배우는 마치 이문열의 소설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에 나오는 그런 사랑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련한 추억

을 간직한 채 언니들과 딸 부잣집 막내인 저 역시도 모두 시집을 가고 고향집에는 늙으신 부모님과 막내 남동생만 남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시집오고 오랜만에 친정집에 가니 전축과 LP판은 돼지우리 속 한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좋은 LP판은 DJ를 하고 있던 조카 친구가 가져가고 20여 장 남은 앨범이 있어 제가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케이스는 너무 낡아서 만질 때마다 부서져서 테이프로 붙여서 보관을 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LP판 중, 오늘의 팝송(TODAYS POPSONG) 제4집에는 제가 좋아했던 곡들이 들어 있었어요. '언체인드 멜로디(Unchained Melody)'도 들어 있었는데 그 노래가 그렇게 오래된 노래인 줄 몰랐어요. 일본에 살고 있는 언니가 한국에 놀러 와서 그 판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그 판을 사기 위해 서울을 한 달간 왔다 갔다 하면서 청계천에서 겨우 구한 앨범이라며 정말 행복해 하면서 음악을 듣더군요.

이렇게 턴테이블이 생긴 이후로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LP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추억에 잠깁니다.

며칠 전에는 일본에 사는 큰아들이 회사 사장님을 모시고 집에 오게 되었어요.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LP판을 틀어주니 사장님도 추억에 잠기면서 아버지가 노래를 좋아해서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선생님들의 부탁으로 아버지께서 학교에 오디오 시설을 설치해주곤 했다면서 그 시절이 그림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들던 일본의 여배우이며 가수인 '나카야마 미호'의 LP판 사진을 찍어가며 일본의 가족들에게 보여준다고 기뻐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큰아들이 LP판을 뒤적이다가 “엄마, 이재성의 <기적> 판도 아직 있네요?”라고 말하기에 저는 무심결에 “그래 있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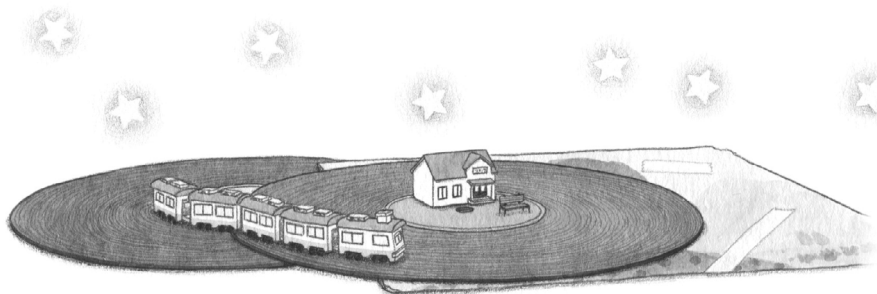
라”라고 말했더니 아들 말로는 제가 한동안 그 노래에 꽂혀서 매일 그 노래만 들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의 지우개’처럼 저는 전혀 기억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멀리 기적소리가 들려오면/나는 밤 깊은 플랫폼에 앉아/그대 모습 실은 기차를 기다리네~’

너무나도 포근하게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아들은 초등학교 이었을 텐데 어떻게 가수 이름과 제목까지 정확하게 맞추며 엄마에 대한 추억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시 “아들, 플랫폼에 관한 기억이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시골 외가댁에 놀러갈 때, 간이역 플랫폼에 내려서 급하게 우동을 먹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때 가사들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라 이렇게 낭만적일 수가 있다면서 지금은 인스턴트시대라 이런 추억이 갖든 작사는 못할 거라고’ 얘기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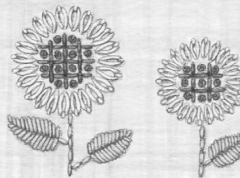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엄마의 작은 추억 하나까지도 기억해주는 두 아들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음악은 국적을 떠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추억을 가져다주나 봅니다.

끝으로 집에 있는 LP판에 양희은 씨는 동생 양희경 씨랑 반바지 차림의 예쁜 소녀의 모습으로 계시네요.



## Letter 14

# 엄마 잃은 손녀를 키우며



한숙자 |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저는 시골에서 32년째 과수원과 벼농사를 짓고 있는 50대 중반의 이쭈마입니다. 아니 오늘은 10개월 된 손녀의 할머니로 인사드려야겠네요.

지난해 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해서 결혼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겠어요. 며느리 얼굴 3번 보고 부랴부랴 결혼을 시켰지요.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 날 밤, 아들이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서울 큰 병원에 입원했는데 위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 손녀를 낳았는데 예쁜 딸을 낳은 지 일곱달 만에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이 걱정애 어찌 눈을 감았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스물아홉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저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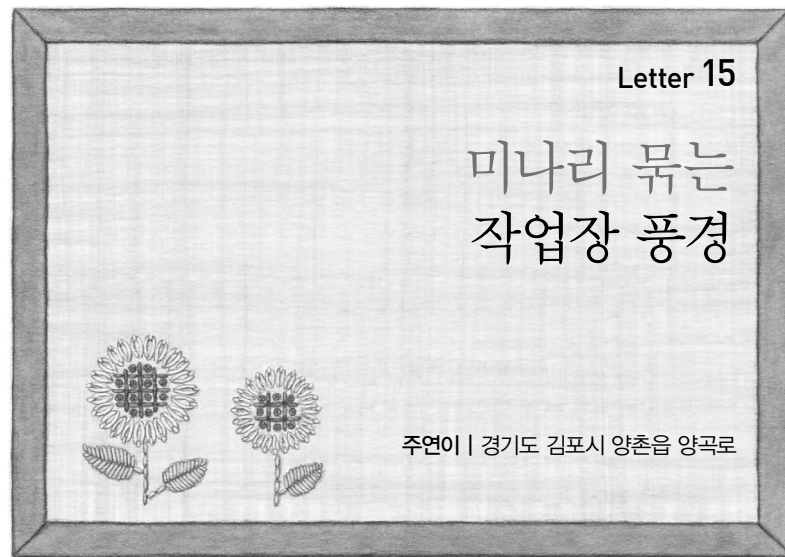
상으로 간 며느리가 너무 아깝고 불쌍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산 사람은 살아야겠기에 홀로 남겨진 제 아들과 손녀 걱정이 앞섰습니다. 신혼생활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홀아버가 된 우리 아들. 엄마 없는 자식을 키워야 하는 아들 심정을 생각하니 또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며느리가 떠나니 힘든 건 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제가 갓난아기를 키운다는 게 솔직히 버겁더군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으니 잠도 깊이 못 자고, 밥 한 끼 맘 편히 먹지 못하고, 잠시 외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온 신경을 쓰다 보니 그 많은 농사일은 모두 남편 차지가 됐죠. 고된 농사일에 밤이 되면 끄끙 앓는 남편을 보는 것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을 봐도 손녀를 봐도 또 남편을 봐도 가슴 아프고, 저는 저대로 힘이 들고 이런 생활을 몇 달 하다 보니, 우울증도 와서 '나도 며느리 곁으로 따라갈까' 해선 안 될 생각도 한 적이 있네요. 하지만 이런 못난 생각이 들 적마다 초롱초롱 맑은 눈으로 생글생글 웃는 손녀를 보면 '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반성하고, 손녀에게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손녀는 요즘 예쁜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아마도 '할머니 힘내라고, 아빠, 할아버지 모두 힘내시라고'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과 남편, 그리고 제게 "힘내라"고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할머니와 함께 매일 여성시대를 듣는 우리 손녀에게도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천 가지의 직업을 보고 듣고 살아가지만 제 나이 칠십 평생 동안 한번도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없는 '미나리 묶는 작업'이라는 게 있더군요.

간혹 텔레비전에서 미나리 밭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미나리를 그 자리에서 베어다가 신선하게 먹는 모습을 본 적은 있습니다. 또 마트나 장에 가면 정갈하게 묶여 있는 미나리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 미나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묶여 나오는 지는 제 관심 밖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나리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 미나리 묶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칠십 평생이 마치 헛 산 것만 같아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나이는 칠십이지만 복지관 가기는 낯설고 집에서 부업을 하자니 집만 어지럽힐 것 같아 시간 나면 그냥 여기저기 구경을 다녔습니다. 인

사동에 가서 그림을 구경하기도 하고 서울지역의 풍물시장도 기웃거리고 보고 동묘나 남대문시장에 가기도 하고, 등산도 다니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무료하게 느껴질 즈음 길거리에 놓인 생활정보지를 통해 <미나리 묶는 작업하실 분 구함>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분이 이것저것 친절하게 설명하며 '그냥 편하게 부업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한번 해 보세요' 하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 20분에 집 앞에서 있으니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차를 가지고 와서 직접 출근을 시켜주었습니다. 제가 작업장에 들어서니 여자 분 12명과 남자 분 1명이 열심히 미나리를 선별하고 묶는 일을 하느라 저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닐앞치마에 비닐토시에 장화와 고무장갑으로 무장을 하고 다들 부지런히 오른쪽 손의 미나리를 왼쪽 손으로 옮기면서 지지분한 것을 훑어 내리고 단을 묶은 다음, 각자 옆에다가 절도 있게 쌓아놓는 모습에 제 눈만 휘둥그레졌습니다.

미나리밭에서 외국인 근로자 6명이 미나리를 베어다가 작업장에 실어 날랐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나이보다 젊으시다, 일도 잘하실 것 같다, 부업이라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일하라' 부추기더군요.

일단 미나리 한 단을 묶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두 내외는 '예쁘게 잘 묶었다, 손이 참 빠르다, 앞으로 잘하실 수 있겠다' 지꾸만 비행기를 태우더군요. 하지만 저는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비닐앞치마가 너무도 거추장스럽고, 장갑을 껴서 그런지 손의 움직임이 둔한데다가 미나리로 가득한 곳이니 그 향이 너무 진해 숨쉬



기도 힘들었습니다. 옆 사람보다 느린 솜씨로 묶어 놓은 내 미나리 단을 보니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한심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라디오나 듣고 있을 걸 하는 후회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며 쉬엄쉬엄 하는 일일 거라 생각했던 저의 상상은 한나절도 못 가 허공에 날아갔습니다.

미나리 한 단 묶는데 200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100단을 묶어야 하루 2만 원을 받는데 그 정도는 해낼 수 있을 거라 속으로 생각했습니

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루 몇 단씩을 묶느냐고 사장님께 여쭙어 보았더니, 사장님 말씀이 잘하시는 어르신은 하루 200단 넘게 묶고, 보통은 150~170단 정도 묶는다고 하시더군요. 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200단을 묶으면 4만 원. 와우, 대단하다.' 하지만 제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10명이 80살이 넘으셨고 2명은 미안마에서 온 50대 여성과 필리핀에서 온 60대 여성이었는데 모두 경력이 10~20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나리 묶는 작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르신들은 이 일을 20년 넘게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10명의 어르신들은 새벽 5시 30분이면 작업장에 도착해서 저녁 6시까지 한자리에 앉아 미나리를 묶는다는 겁니다.

이곳 사모님은 아침 7시에 아침식사를 준비해서 일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점심도 해서 먹고, 새참으로 비빔국수나 칼국수를 해서 먹인답니다. 두 분은 새벽 3시 20분에 기상해서 사장님은 어르신들 출근시키고 사모님은 아침, 점심, 새참까지 준비하며 틈틈이 미나리를 100단 넘게 묶는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군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점심 값, 새참 값을 하려면 나태하게 부업이라 생각하지 말고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최소한 100단은 묶어 사장님과 사모님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자고요. 밥 먹는 시간은 10분도 길어 보였습니다. 다들 얼른 밥 먹고 일하려고 후딱 먹어치우더군요. 화장실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았습니다. 6시가 되어 미나리 단 숫자를 확인하고 화장실에 달려가니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지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화

장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해서 빨리 나왔습니다.

다시 퇴근차량에 탑승을 하니 그제야 긴장이 풀리고 2만 원 번다고 죽을 뻔한 저와는 대조적으로 어르신들은 느긋하게 앉아 계시더군요. 다행히 미나리 작업장과 저희 집과의 거리가 차로 10분이지만 어르신들은 2시간 정도 걸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등도 많이 굽고 연세가 있으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새벽 3시에 기상해서 저녁 6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하시는 어른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지금의 제 실력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1년, 2년, 10년 후에 지금 일하는 어르신들처럼 미나리 묶기의 달인을 기대해주세요. 그런데 사장님은 그때까지 미나리깡을 하실 건가요?” 물었더니 사장님과 사모님께서도 앞으로 20년은 더해야 아들, 딸 시집 장가보낼 수 있고 노후대책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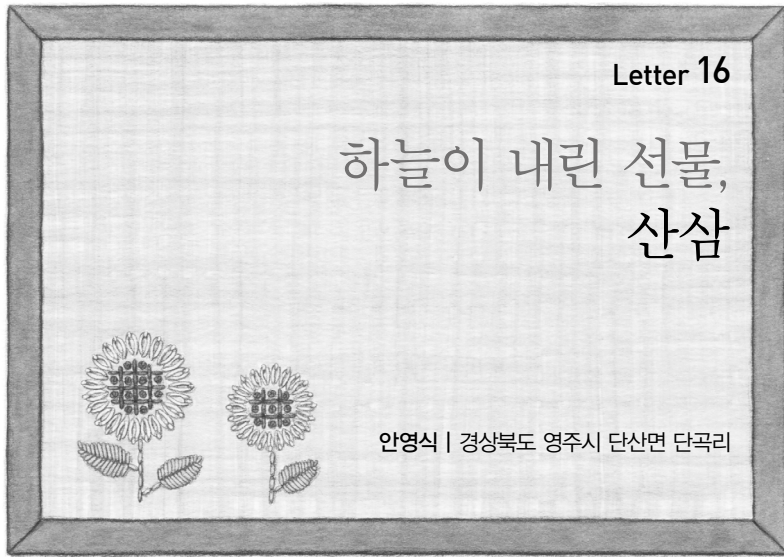
저도 저의 노후대책을 지금부터 미나리 묶는 작업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미나리 묶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외국인 근로자 청년들은 아주 착실하고 유머감각도 좋습니다. 미나리 묶는데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미나리도 잘 베어다 주고, 주변에 떨어진 지저분한 미나리 줄기나 잎도 금세 치워줍니다. 내 손자 같은 그 일꾼들을 보며 때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긴 장화에 까맣게 탄 얼굴이며 온몸이 땀에 젖어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그래도 땀 흘려 돈 버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미나리 잡수실 때 제가 써 보낸 이 편지 속의 미나리 작업장을 상상하시면서 맛있게 건강하게 드십시오.

- 김포 약암 미나리 작업장에서 70세 할머니 씀





한 회사에서 10년이 넘게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달아났다. 월급이고 퇴직금이고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남의집살이를 끝내자, 내 사업을 해야겠다. 그때가 1985년 이른 봄이었다. 형님에게 돈을 빌려서 중고 굴착기를 지인과 동업으로 사서 2년 동안 일하러 다녔다. 하지만 중고 굴착기 수리비와 경비를 빼고 나니 월급쟁이보다 수입이 못했다.

그래서 철원 민통선 마을에서 개간사업을 하면 수입이 괜찮다는 말을 듣고 전방으로 향했다.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그 당시 밤이면 대남방송이 밤새 들려오고 야간사격장에는 조명탄이 대낮처럼 흰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잠을 못 잘 정도로 긴장되었다.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 어떤 곳은 지뢰가 나오기도 하고 하루에 몇 개씩

폭발물이 나오기도 했다. 이웃 동네에서는 작업하다가 폭발물 사고로 장비가 대파되고 중장비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일을 해야 했다.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아이들은 커 가고, 남의집살이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일을 해야 했다.

논밭을 만들어주고 나면 돈을 받아야 하는데, 농촌에서는 현금결제가 어려웠다. 농사를 지어 가을에 쌀을 판 돈을 받기도 하고, 쌀로 받아서 쌀장수에게 팔기도 했다. 어떤 집에서는 양봉 꿀을 받기도 했다. 연로비는 현금을 줘야 했기에 항상 쪼들리는 생활이었지만, 그곳에서 번 돈으로 굴착기 살 때 빌린 돈도 갚고 인천에 아파트도 장만할 수 있었다.

개간 일이 없으면 군부대 공사도 했다. 군부대 공사는 공병대 군인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간 모자를 쓰고 군용트럭을 타고 출퇴근해야 했다. 1990년 11월 어느 날, 군부대 출근하는 군용트럭이 10시가 넘도록 오지 않아서 대성산으로 터덕을 캐러 갔다. 11월 중순이라 터덕 싹이 노랗게 물이 들어서 터덕 캐기가 참 좋은 시절이었다. 한나절 동안 터덕을 캐러 다니다가 다래 넝쿨 아래 앉아서 쉬고 있는데 내 옆에 노랗게 단풍 든 풀포기가 아무리 봐도 삼이었다. 내가 경북 풍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삼 잎사귀는 잘 안다. 가슴은 쿵다쿵다 뛰기 시작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혼잣말로 “심봤다, 심봤다, 심봤다!” 외치고 나서, 배낭 속에 있던 빵과 우유로 돌을 주워 상을 차려놓고 감사의 절을 올렸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정말로 착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수십 번 다짐하고 조심스럽게 흙을 파 내려갔다. 대나무 뿌리 같은 뇌두가 한참을 이어지고 드디어 하얀 속살이 드러났다. 틀림없다, 산삼이다. 한 포기 캐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 일대를 한 시간도 더 살피고 또 살폈다. 그때 유격장 쪽으로 이동하는 군인들이 지

나가기를 숨어서 기다렸다가 산을 내려가려는데 독사 한 마리가 파리를 틀고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산삼을 지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데 독사보다 더 큰 살모사가 꼬리를 흔들며 고개를 뺏뺏하게 들고 헛바닥을 날름거렸다. 겁이 덜컥 났다. '산삼을 버릴까? 아니야 버릴 수는 없어.' 한 번만 뱀을 더 만나면 버릴 생각을 하고 하는 수 없이 계곡 쪽으로 내려갔다.

해가 지고 있고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 물소리가 나는 곳으로 물을 찾아가던 중, 내 눈을 의심했다. 단풍나무 아래가 노랗게 물든 산삼 앞으로 가득했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불을 꼬집어보고 눈도 비벼보고 잎사귀를 뜯어서 씹어도 봤다. 틀림없는 산삼이다. 이번에는 나도 모르게 큰소리로 외쳤다. "심봤다! 심봤다! 심봤다!" 그리고 산삼을 향해서 세 번의 예를 올렸다. 곡괭이도 없이 단풍나무 사이로 내려간 산삼 뿌리를 캐다 보니 잔뿌리는 잘리고 뇌두도 떨어졌다. 제일 큰 산삼 한 뿌리가 나무뿌리 사이로 들어가서 도저히 캐 수가 없어서 더덕 뽑듯이 뽑았는데 그만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다. 끊어진 산삼을 씹어 먹으면서 캐다. 산삼의 씹싸래한 맛과 특유의 향기가 오장육부에 전해지는 기분이었다. 모두 다 캐고 보니 아홉 뿌리였다. 그 높고 험한 산을 달려 내려오면서 '팔자 폼다. 이젠 팔자 고쳤다' 속으로 외치면서 어떻게 숙소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이튿날 화천에 있는 전문 심마니가 찾아와서 흥정을 했으나 안 팔고 인천 집으로 가져왔다. 그 이튿날 다시 산삼을 사겠다고 심마니가 화천에서 인천까지 007가방에 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왔다. 아이들 먹을 산삼 두 뿌리를 빼놓고, 천만 원을 받고 팔았다. 아내는 돈 아깝다고 안 먹겠다고 해서 삼을 먹지 못했다. 50년이 넘는 천중산삼이지만 잔뿌리가 떨어지고 뇌두가 잘려서 상품 가치를 잃었다고 했다.

그 당시 굴착기로 한 달에 이백만 원 정도 벌었으니 5개월 정도의 수입을 산삼을 캐서 번 것이다. 산삼을 산 사람은 서울 서초동에 가서 사천칠백만 원 받았다고 다른 심마니가 나에게 알려주었다. 서초동에서 그걸 산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회귀약재상을 하는 사람이라 했다. 그래도 억울하지 않고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며칠 후 산삼을 캐던 자리에 가서 심마니가 시키는 대로 예를 올리고 그 주변에서 또 한 뿌리 캐서 이백만 원을 받았다. 산삼을 판 돈으로 딸 피아노 사주고, 작은 승용차 한 대 사고, 새 굴착기 계약금 주고 그때부터 자가용을 타고 다니게 되었다. 우리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 해가 1990년이였다.

그 후에도 장모님이 알츠하이머병으로 고생하실 때 세 번 산삼을 캐서 드렸고 우리 어머니도 드렸다. 2002년에는 우리 아이 두 남매가 대학교에 다녔는데 5개월 동안 일하고 돈을 못 받아서 생활조차 어렵던 시절, 마니산에서 열여덟 뿌리의 산삼을 캐서 돈 아까워 못 먹은 아내에게 몰래 가장 큰 산삼을 갈아서 먹이고 나머지는 팔아서 아이들의 학비를 낼 수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산삼을 한 백 뿌리 이상은 캐 것 같다. 대성산, 구봉산, 소백산, 마니산 등 가는 곳마다 산삼을 캐다. 그러나 나는 산삼을 꼭 캐겠다는 욕심으로 산에 가지는 않는다. 일이 없는 날에는 산행을 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막걸리 한잔 부어놓고 입산을 한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산에 오른다.

예순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굴착기를 놓지 못하고 있다. 일하러 가는 곳에 산이 있으면 지금도 산행을 빠뜨리지 않는다. 많은 건설업자들에게 부도를 맞고 배신을 당했지만 어려울 때마다 산삼을 캐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었다.

## 부부

박선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천동



여성시대들 통해 매일 아침이 즐거운 주박입니다.  
 지난 오후 저의 부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참 많은 것이  
 좋아가는 저와는 연애는 12년과 이자 부부로는 9년과  
 입니다. 연애는 해본 적도 없던 제가 처음으로 함께 하고  
 싶다 느꼈던 남자이기 4개월 만에 상대 후 재대까지도  
 이 남자만 바라보며 기다렸고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장을 드는 모든 것이 좋기만 합니다. 물론 인간 대 인간이  
 만났는데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아간다는  
 건 신기하더군요. 당구, 축구, 낚시를 좋아하며 친구를  
 희배를 선배와의 만남으로 작은 데다 분위기 취해 술에  
 취해 외박으로 이어지는 남편이 결혼 초부터 두 아이 태  
 어난 3년 동안 이어지니 분노는 적하게 터져 나올 때도 있

었습니다. 큰 아이 없고 작은 아이 안고 울며 보낸 밤도  
 많았고 외박하던 오느 날이면 싸웠습니다. 드르륵 열려  
 문을 베개와 아이들 가져개를 던지며 '왜? 왜 또  
 야야 들어와?' 소리치르면 '뭐?' 이 한마디에 결국  
 눈을 껌뻑 손아내며 '애들 재우기가 쉬워? 만들어올 때는  
 전화라도 하잖아?' '형님들하고 술마다 거기 사무실에서  
 잤다 됐나?' 그리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만 할  
 때는 참 내가 왜 이라고 사나? 서럽고 서러웠습니다.  
 둘째아이 낳았으니라 3년을 힘든 남편과 술잔만 못했던  
 것이 남편으로써는 마음 나눌 것이 사무실 형님들 뵈었다는  
 것을 사우고 며칠 후 술집에 울며 말리는 남편을 통해  
 알게 되니 되돌아 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었나?  
 어깨 축 쳐진 채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도 수는 휴식.  
 보다는 밥차량이니 준비 도와달라, 애기 목욕시킴동만  
 설거지 해봐라, 이불 펴서 잠깐 비하러며 잠서도 쉬지 못한





남편은 집이 오리려 강옥처럼 자유는 없는 곳이었다는  
사실에 쓸쓸 했을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아파보였습니다.  
그때 하나씩 남편이 좋아하던 걸 색안경까지 갖고 바라보자.  
먼저 당구.. TV 당구 프로그램을 보며 어떤것인지 궁금해하자  
은근슬쩍 다가온 남편은 당구에 대하여 말해주었고 큰아이  
장시 맡겨두고 낮동안 조용할때 찾은 당구장에서 배워  
보기도하며 취미를 하나들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였  
습니다. 강구, 낚시, 족구를 따라다니며 보내는 시간은 남편  
과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고 밖에서가 아닌 저와 아이  
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발씻겨주거  
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서로 속스러워 말도 못하고 간지  
러움참노라 음질하는 바람에 물도 손도 물이다가 되었  
지만 언제부터인가 먼저 '오늘은?' 이라며 남편이 물어 보



르 서로 싸우 날이는 발씻겨 주기로  
마음을 풀었습니다. 유년차가 되어가는



저는 위 부부는 늦은 다며 말해준 날은 한번 전화  
통화로 건강상태나 기분, 출근 시간을 물어보는 연재  
가 되었는데 뽀시안이 흔들도 낚달하거나 물러 취미 생  
활하치로 생으며 저의 취미 생활을 찾아 그림을 그리  
겠다 말하니 '와~ 멋지다, 잘하네, 질투한거 없어?'  
물어보며 종이와 색연필을 아낌없이 쓸수있도록 해주  
니다. 부부생활을 가장 필요했던건 공동취미를 만들고  
받싯겨주기로 존중하는 시간과 그 마음 알아주기  
였나봅니다.

여보~ 오늘도 발 씻겨줄게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2015년 6월 18일미숙♡



2015.6.17 Hongju

# A부터 Z까지 가능한 회사를 꿈꾸다

IBK기업은행 신영통지점 거래고객

(주)창신 김태수 대표

글 | 김하늘 (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1974년 화장품 회사 사원으로 업계에 첫발을 디딘 후 지금까지 한 우물을 파 온 김태수 대표. 1988년 (주)창신을 설립한 그는 지난 세월 화장품 업계의 굴곡을 온몸으로 오롯이 받아냈다. 그가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아이디어'와 이를 실현해 낼 수 있는 '열정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태수 대표가 처음으로 용기를 낸 순간, (주)창신의 역사가 시작됐다. 지난 날 밤낮 없이 신발 굽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설 새 없이 뛰어다니며 내 회사처럼 열정을 다 바쳤던 회사에서 나와, '이제는 스스로 독립할 때라고 선언한 것이다.

"1974년 한국화장품에서 경력을 쌓은 후, 보다 작은 규모의 화장품 회사에 스카우트 됐습니다. 공장 관리자로 들어가서 공장 전체를 총괄하는 역

할을 맡게 됐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일한 때였습니다. 직원들과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제가 그곳에 몸담았던 5년 동안 회사 연 매출이 26배 정도 늘었습니다. 회사가 크게 발전하는 것이 저와 동료들의 크나 큰 보람이었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김 대표는 그곳에서 '그 어떤 회사도 몇몇 직원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시킬 수 없으며, 모든 조직원이 혼연일







체가 될 때 비로소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큰 교훈을 얻었다고 소회한다.

“그동안 혼신을 바쳐 일하던 직장을 뒤로하고 창업을 결심한 후 지금까지 28년째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니던 회사의 배려로 납품을 했으나, 발주가 없을 때는 재고가 쌓여 답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중고 봉고차를 한 대 사서 납품하면서 혼자 부지런히 영업활동을 했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2년 쯤 지나니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했던가. 사업 규모가 커가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왔다. 우여곡절을 겪은 나머지 김 대표는 옛 직장동료들과 협력업체 사장님 등 그동안 신뢰를 쌓아왔던 여러 지인의 도움을 받아 영업 부진을 만회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지인들의 도움만 받고 있을 수는 없었다. 김 대표는 그때부터 ㈜창신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운영 방법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먼저 '약속을 잘 지키는 기업'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 직원 월급은 물론 물품대금 지급도 한 번 밀린 적이 없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일만 받았고, 역량 이상의 일이 들어오

면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납품일자를 조정했다. 일을 많이 준다고 해도 거절하니, 처음에는 원성이 자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고객이 ㈜창신을 믿고 찾을 수 있을 만한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프리몰드'를 시작했다.

“프리몰드란 디자인부터 개발, 제작까지 직접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화장품 용기 생산에 필요한 전 공정을 직접 소화하는 것이지요. 또한, 고객의 용기 디자인 선택을 돕기 위해 업계 최초로 오픈형 쇼룸을 만들었습니다. 제품을 손으로 만지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입니다. 카탈로그도 용량별로 분류해서 제품 라인업(Line-up)이 용이하게끔 제작했습니다.”

프리몰드를 시작한 후로 ㈜창신은 제품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의 디자인 개발 연구소를 한층 더 보강해서 용기 디자인뿐만 아니라 패키지 디자인까지 원스톱 시스템(One-stop System)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용기 디자인부터 사출, 조립, 후가공, 인쇄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패키지 디자인까지 더해지면, 화장품 유통을 하시는 고객은 저희가 만든 용기에 내용물을 충전해서 팔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선택하는 번거로움과 고객의 경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A부터 Z까지 모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화장품은 마케팅 특성상 '감성 상품'이자 이미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산업이다. 화장품 산업에서는 패키지가 곧 상품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고객은 기왕이면 예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제품을 고르기 마련이고, 일단 써 보고 좋아야 그때부터 입소문을 통한 브랜드 파워도 생기는 것이다. 김 대표는 평생을 화장품 업계에 몸담은 전문가답게 이러한 화장품 마케팅의 특성을 정확하





게 이해하고 있는 듯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IBK기업은행 신영통지점 변상남 지점장은 “요즘 화장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타고 (주)창신이 한걸음 더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건물이 준공돼 공장이 확장되면 김 대표님이 쌓아온 내공과 장인정신을 더욱 발휘할 수 있

지 않을까요?”라며 기대를 표했다.

낮은 단가, 영업력이 경쟁력이던 시대가 가고 ‘품질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왔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주)창신이지만, 세계 시장에서도 손꼽히는 ‘명품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꾸준히 달려가고 있다. 이제 그 꾸준함이 빛을 볼 시기가 머지않았다.



IBK기업은행 신영통지점 변상남 지점장(왼쪽)과 (주)창신 김태수 대표(오른쪽)

### TIP 김태수 대표의 성공 노하우

1. 지금까지 온 것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2.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3. 결단력과 용기가 있어야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 (주)창신

대표 김태수

주소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4길 19(석우동 19-12) (031-8003-6060~1)

홈페이지 <http://www.csns.com>



## IBK와 함께하는 특별한 기쁨

# IBK 평생가족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단, 입출금식은 1인 1개좌)

상품구성 입출금식, 적립식, 거치식

통합한도 적립식 (1인당 월 적립 통합 200만원), 거치식 (1인당 통합 1억원)

(2015.7.27 현재, 세전 단위·연%)

적용금리

구분 (1년제 기준)	적립식		거치식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실세리통장예금	중소기업금융채권
기본금리	1,65	1,55	1,55	1,70
최고금리	2,05	1,95	1,75	1,90

제공혜택

- 입출금식 : 타행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월 10회)면제 등 각종 수수료 면제
- 적립식 : 기본금리(추후변동가능) + 고객별 우대 최고 연 0.1%p + 주거래 우대 연 0.3%p
- 거치식 : 기본금리(추후변동가능) + 고객별 우대 최고 연 0.05%p + 주거래 우대 연 0.15%p

\*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은 조건 충족 시 제공되며, 최고금리는 우대금리 포함 시 적용됩니다.

\* 본 내용은 요약본으로 우대금리 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으로 문의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5-1811호 (2015.7.10) 게시기간 : 2016.7.31

이 예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 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별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서는 거래영업점 또는 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와 관련 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민행이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19) ·IBK기업은행은 금융·청정을 받지 않습니다. 유희경영위원 사칭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 시원한 쾌변으로 아침을 깨운다!

- ✓ 대변이 힘들고
- ✓ 가스가 차고
- ✓ 속이 더부룩하고
- ✓ 묽고 가는변까지...

“저녁에 한번! 아침에 한번!”  
음료는 냉장 보관 후 드시면 더 상쾌합니다!



상쾌한 시작! 깔끔한 기분!  
**쾌변데이**  
클라라



식품사업부  
IBK\*한독화장품(주)  
소비자상담실 : 080-770-0405



검색창에 **쾌변데이** 를 쳐보세요  
전국 유명 약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양희은·서경석  
입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대전  
92.5/91.3

삼척  
101.5/93.1

춘천  
92.3/88.9

서울  
95.9

전주  
101.7/94.3

대구  
96.5

부산  
95.9/106.5

제주  
92.0(권일암)  
92.1(삼대봉)



## 마음도 수선해드립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쌍문 옷수선'

글 | 성기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북한산 자락이 온 동네를 감싸 안고 있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그 거리 한 켠에서 '드르륵 드르륵' 경쾌한 재봉틀 소리가 들린다.

여성시대 가족 양경희 씨가 수선집을 시작한지는 이제 6년째. 재봉경력 27년차의 베테랑이다. 학교 졸업 후 시작한 재봉일이 여전히 손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여성복을 시작으로 아동복, 남성복까지 만들어 보았고 개량한복을 만드는 유명업체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 자신의 손에서 옷이 똑딱 한 벌 만들어지는 게 신기했고, 자신이 만든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란, 어려서 선생님께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았을 때처럼 즐겁고 행복했다.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낳아 기르며 재봉일로 번 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어주었다.

그런데 2006년 초겨울, 그날은 시댁에 가서 김장을 하고 온 날이었다. 김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온몸이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매가리가 없었다. 혹시 몸살기인가 싶어 목욕탕으로 향했고, 생애







처음으로 때를 밀어주는 분께 몸을 맡겼다. 그날 하루는 호사를 누리고 싶었다.

그런데 한창 때를 밀던 아주머니께서 “가슴이 좀 이상하네. 병원에 한번 가봐” 말씀하셨다. 아주머니 말씀에 의하면 가슴에 뭔가가 잡힌다는 거였다. 다음날 동네 병원에 가면서도 ‘설마’ 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 했고, 대학병원에서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상했다. ‘먹는 것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아픈 곳도 없었는데 내가 유방암이라니’ 대학병원에서 만난 의사는 하루가 급하다며 수술을 권했다. 수술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수술동의가 필요한데 그때마침 남편은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위에서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 척추를 다쳐 수술을 받아 병원에

누워 있던 상황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거의 누운 상태로 병원에 와서 사인만 하고 자신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돌아가야 했다.

보호자도 없이 수술실에 들어가려니 마음이 참 무거웠다. 수술실 앞 5명의 환자가 양경희 씨처럼 침대에 누운 채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다. 왼쪽의 두 명의 환자, 오른쪽의 두 명의 환자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분들이 너무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며 “울지 마세요” 위로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긍정적이고 남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아는 양경희 씨 평소의 성품이 수술실 앞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드러나고 말았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하는 와중에 이번엔 자궁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치료가 이어지고 매일 병원을 들락거리는 생활을 해야 했다.

부지런하고 억척스런 양경희 씨는 암 투병 중에도 일을 했다. 당시는 회사를 다니고 있던 지라 병원에 자주 가는 게 눈치가 보여 회사를 그만두고 수선집을 차리게 된 것이다. 내 가게를 하니 병원에 간다고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피곤하면 일찍 가게 문을 닫아도 되니 이보다 더 좋은 순

없었다. 긍정적인 성격 탓인지 암세포도 슬금 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수선집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동네분들이다. 바지의 밑단을 줄



여달라는 분, 치마허리를 늘어달라는 분, 교복을 몸에 딱 맞게 줄여 달라고 오는 학생들, 30년 전 입었던 재킷의 어깨선을 줄여 달라고 오는 분들로 분주하다.

제일 힘든 수선을 손꼽아 보면 단연 1위는 남자 양복 어깨선을 늘이거나 줄이는 일이다. 만나절을 씨름하며 고쳐야 하는 까다로운 일이다. 어깨를 수선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은 대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다. 나이가 들어가며 살이 빠지고 그래서 어깨선을 줄이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정성에 정성을 담아 바느질을 한다.

푸근한 미소에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양경희 씨인지라 수선집은 동네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옷을 수선하는 사이 속 썩이는 자식 얘기를 한보따리 풀어내는 아주머니 얘기를 가만히 들어드리고, 섭섭하게 하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다는 어르신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고, 어머니 정말 속상하시겠다” 한마디 추임새도 넣고, 몸이 아파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는 “저도 큰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 힘내세요” 진심을 담아 위로해 드린다.

그리고 보니 이 수선집을 찾는 분들은 옷만 수선해 가시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고쳐 가실 게 분명하다.

학생들이 오면 내 자식 같아서 싸게 해주고, 어르신들이 오면 우리 부모님 같아서 또 깎아 드리니 그 마음이 왜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을까! 한 번 찾았던 분들은 곧바로 단골손님이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보인다.

좀 싸게 옷을 고쳐 간다 싶으면 가던 길 돌아와서 과일이나 음료수라도 사서 주고 가는 분들이 태반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짧은 순간이라도 상대방이 진심을 담아 정성껏 대한다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걸 수선집을 하면서 알게 됐다는 양경희 씨다.

노안이 급격하게 오면서 옷을 수선할 때 돋보기를 써야 하지만 앞으로 20년은 더 이 일을 할 계획이다. 유방암 수술 후 오른쪽 팔이 자주 부어 팔을 주무르고 손을 털어가며 일을 해야 하지만 일이 즐겁기만 하다.

“65세까지는 일하고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재봉기 술이라는 게 남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정년도 따로 없으니 잘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내 옷을 고친다는 마음으로 수선을 할 겁니다.”

가게를 마주보고 선 북한산처럼 넉넉하고 푸근한 양경희 씨다.



## 코너 속 편지



일러스트 | 조신애

- 83 장용의 단필총 천하골통 조 이병 “아아아 아아아아”  
 92 나의 연애시대 아내의 잃어버린 볼  
 97 일요일엔 편지를 응급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들에게  
 99 일요일엔 편지를 내 딸 정빈이

장용의 단 · 필 · 총

# 천하골통 조 이병 “아아아아아아~!”

이기모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저는 강원도에서 군대생활을 했습니다. 상병 때의 일이지요. 부대에 신병이 하나 새로 전입해 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신병이 들어오자 할 일 없는 고참 무리들이 먹이를 노리는 하이어나처럼 신병을 쭉 둘러쌌습니다.

“어이, 신병!”

“네! 신병 조! O! O!”

“너 사회에서 뭐하다 왔어?”

“네! 대학 다니다 왔습니다.”

“와우~ 이제 우리 내무반에도 가방끈 긴 거 하나 들어온 거야? 누나나 여동생 있어?”

“네! 있습니다. 다들 예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쁘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범답안을 제시한 이등병의 말에 다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재차 진실임을



확인하는 우리들의 질문에 “제 누나가 항공운항과 재학 중입니다. 누나 친구들도 다 예쁩니다”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이 고졸이었던 내무반에 꿈에 그리던 여대생, 그것도 예쁘기로 유명한 항공운항과 출신의 누나를 두었다는 말에 다들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후일답이지만 내무반의 그 어느 누구도 조 이병의 누나나 조 이병 누나의 친구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고참들이 누나에게 면회 좀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별의 별 핑계를 다 대어가며 뺨질 뺨질 빠져 나가기 일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누나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서 말입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친구들이랑 함께 오기로 했는데 교수님이 항공사에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줘서 지금 바쁘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꼭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연들이 겹치자 몇몇 고참들은 거짓말이 아니냐고 다그치기도 하고 욕박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조 이병 관물대에 꽃아 놓은 조 이병 누나와 그녀의 친구들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면 진심으로 화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엄청난 미인들과 혹시나 연결될 수도 있는 끈을 놓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였죠. 더군다나 당시 내무반 최고참은 조 이병 누나의 친구라고 추정되는 인물과 펜팔도 하고 있었으니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밀어붙이기는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 김 병장도 전역과 동시에 펜팔의 주인공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군대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꼴통이었던 조 이병이 없는 누나까지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하여간 다시 조 이병의 전입 때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고참들이

조 이병을 놀렸고, 잠자코 있던 최고참인 김 병장이 나섰습니다.

“야, 신병! 이 내무반에서 누가 제일 잘 생긴 거 같냐?”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아! 요놈 봐라. 그럼 이 내무반에서 누가 제일 성질이 더러워서 잘 갈굴 거 같냐?”

“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고참 박 상병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김 병장님, 요즘 아이들 약아서 신교대에서 다 연습하고 온다잖습니까? 야! 신병, 금방 말한 병장님이랑 나랑 둘 중에 누가 더 잘 생겼냐? 그리고 누가 성격이 좋을 거 같냐? 또 모른다고 하면 죽는다. 둘 중에 하나 골라.”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조 이병은 계급이 높고 어깨에 건장이 있는 김 병장을 택하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한 후, 김 병장을 지목했습니다.

“네, 김 병장님이 잘생겼고 성격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목해도 새로 온 신병은 정해진 수순에 따라 고참들의 먹잇감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여튼 지목을 받은 김 병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가 역시 군생활을 할 줄 알아. 좋아. 자, 편하게 있어. 각 잡지 말고. 힘 빼고~ 힘 빼~.”

그러나 아까 지목을 받지 못했던 박 상병은 인상을 쓰며 “어쭈? 신병이 빠져가지고. 이것 봐라? 야! 누구랑 군대생활 오래할 지 잘 생각해봐. 각 안 잡아? 너 꼬였어.”

조 이병이 다시 각을 잡자 옆에 있던 김 병장이 또 맞받아쳤습니다.

“야, 요즘 신병들은 병장 말 안 듣고 상병 말 듣네? 그냥 편하게

있어도 돼. 신병 그 자세에서 뒤로 편하게 누워. 옹지, 옹지. 자, 그리고 다리도 꼬고 까닥거리고.”

난처한 인상이 가득했던 조 이병은 결국 김 병장의 명대로 누워서 다리를 까딱거리며 편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고참들은 ‘세상 좋아졌네’, ‘재는 꼬였네’라며 분위기를 더욱 난처하게 물고 갔습니다. 그때 김 병장이 “자! 조 이병! 노래 일발 장진! 지금 제일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른다. 알았지? 노래 일발 장진 발사!”

발사라는 말에 잠시 고민하던 조 이병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나는 댄스곡이나 트로트를 기대했던 내무반은 갑자기 흘러나오는 구슬픈 발라드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들 ‘조금 있으면 빨라지겠지’, ‘이러다 분위기가 확 바뀌겠지’ 하며 기대했지만, 노래는 계속 그대로였고 참다못한 박 상병이 노래를 끊으며 물었습니다.

“야! 뭐 빠른 노래 없어? 트로트나 댄스곡 말이야? 근데 이 노래는 누가 부른 거냐? 처음 듣는 곡인데?”

“네. 박상민 노래입니다.”

“박상민? 선글라스에 콧수염? 무기여 잘있거라? 그치? 나도 그 가수 좋아하는데. 제목이 뭐야?”

“네. 제목은 ‘내버려둬’입니다.”

그 말에 내무반은 다들 뒤집어졌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그 순간 드는 심정은 정말 ‘나 좀 그만 내버려둬’였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그 노래를 불렀다더군요.

군대생활하면서 많은 신병을 받아봤지만 이런 신고식을 한 신병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조 이병이 부대 창설 이래 최대 ‘꼴통 이등병’이라는 수식어를 다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 이병 때문에 내무반 집합도 진짜 많이 했고 본인 역시 많은 갈굼을 당했습니다. 아마 누나와 관련된 연막만 없었다면 몇 군데 부러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부대에서 조 이병이 일으킨 사고는 셀 수도 없습니다.

사격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들 군대 사격장 분위기는 잘 아시죠? 자칫 잘못하면 군대에서 유일하게 구타를 해도 눈 감고 넘어갈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한 곳 사격장,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곳에서 저는 다들 꺼리는 조 이병과 짝을 이루어 사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 이병이 사격할 때 옆에서 철모를 대고 튀어나오는 탄피를 받고 고참으로 주의를 주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야, 니 사격장에서 뽕짓하든 알지? 총은 신고대에서도 썩 봤지?”

“네, 압니다.”

“야, 시끄럽고! 무조건 앞만 보고 씩라. 옆으로 고개 돌리지도 말고 나한테 말하지도 말고 그냥 앞만 보고 씩라. 알겠지?”

제 목숨이 달린 일이었기에 저는 유독 무섭게 굴었고 20발의 사격 동안 조 이병은 아무 말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사격을 하고 나오는 조 이병의 이마에 붉은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너무나 긴장한 조 이병이 어깨에 총을 견착하지도 않은 채 방아쇠를 당겼고 반동으로 튕겨 나온 조 이병의 총가늌자가 조 이병의 이마를 계속 때린 것이었습니다.

“암마! 사격장에서 일 생기면 뒷다리 드는 거 알아 몰라? 신교대에서 안 배웠어?”

“근데, 저... 아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고개만 돌리고 쏘라고 해서...”

그 길로 조 이병은 바로 의무대로 실려 가서 이마를 스무 바늘 꿰맸는데, 이 일이 제 군대생활에서 가장 치욕스런 경험으로 이어질지는 그 당시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른 부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대는 진급식 때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진급식 당일, 이등병에서 일병으로 진급하는 가장 막내의 지시대로 군말 없이 따라야 하는 일종의 ‘야자타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등병 생활을 하면서 고생했던 것도 위로하고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라는 일종의 보상인 셈이죠. 이날 이등병의 야자타임을 문제 삼아 집합을 거는 것은 전통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사회에서 하는 야자타임처럼 막 대할 이등병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짓궂은 농담이나 팔굽혀펴기, 심해봐야 연병장 돌기 등의 가벼운 행사로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추위가 막 맹위를 부리기 시작하는 12월의 어느 날, 저는 드디어 병장 진급식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소장, 준장, 중장, 대장 위에 계급이라는’ 병장을 달게 되다니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때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진급을 했는데 그때 조 이병도 같이 일병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대원들 모두 연병장에 모였고 진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부대장은 조 이병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조 이병, 우리 부대 진급식 전통 알지? 자, 오늘 하루는 고참들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해! 알았지?”

조 이병은 우리 진급자를 앞으로 불렀고, 상병 진급자 3명을 포함하여 저까지 4명이 앞으로 불러 나갔습니다. 저야 뭐 기껏해야 팔굽혀펴기나 하겠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느긋하게 나가는데 갑자기 조 이병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안 나오십니까? 지금 신고식 시작된 거 모르십니까? 군기가 완전 빠졌습니다. 자, 일렬로 집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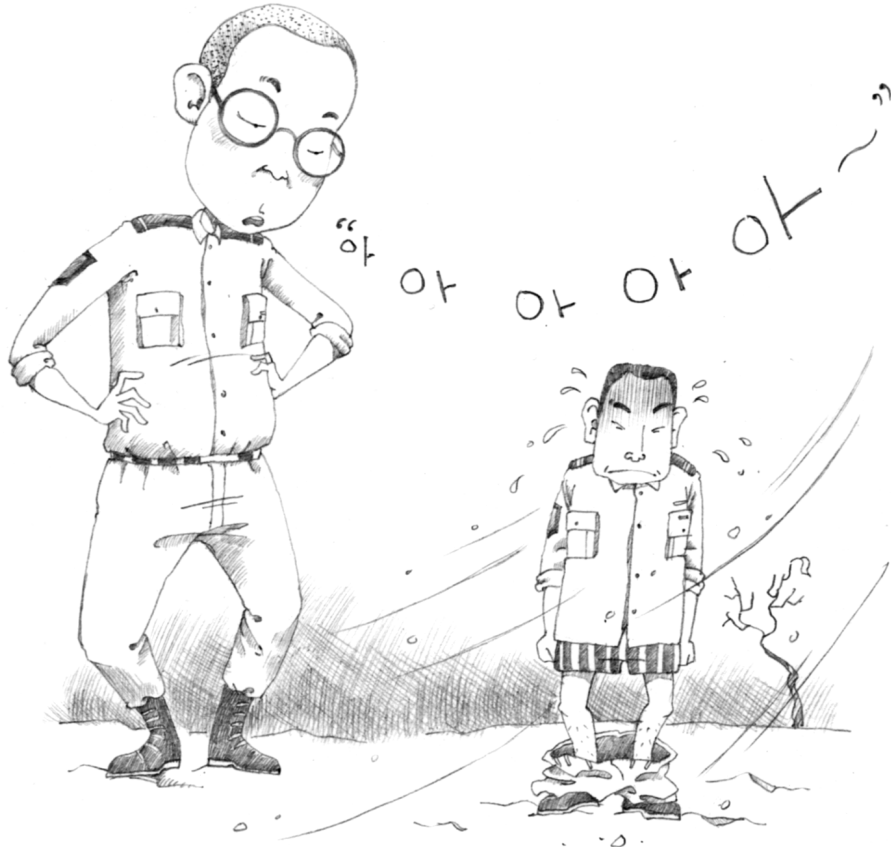
우리는 조 이병이 시키는 대로 정렬을 했고 조 이병이 우리에게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병장 진급자 밑으로 집합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제가 ‘아!’라고 외치면 바지를 발목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라고 외치면 바지를 올립니다.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서 조 이병은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아’ ‘자’를 번갈아 외치기 시작했고 진급자들은 구령에 맞춰 바지를 발목까지 내렸다 올렸다는 반복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대학 엠터 가서 술에 취해서 할 때는 팬티까지 벗었는데 그건 좀 무리고, 하여튼 발목까지는 확실히 내립니다. 아! 자! 아아! 자자! 아자! 아자! 똑바로 안하십니까?”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아 그래도 이놈이 나는 병장이 라고 봐주는구나’ 하고 안심하며 그 우스꽝스런 작태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5분쯤 뒀을까요? 조 이병은 갑자기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일병, 상병 진급자는 들어가시고 김 병장님 나오십시오.”

“김 병장님, 제 이마에 상처 보이십니까? 지난 번 사격 때 생긴 상처입니다.”

그렇게 말하여 자기 이마를 가리키는 조 이병의 눈빛은 매섭게 빛났습니다.

“자, 김 병장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제가 ‘아!’라고 외치면 발목까지 바지를 내리고 ‘자!’라고 외치면 바지를 올립니다. 자, 실시!”

그리고서 조 이병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 이병은 크게 심호흡을 한 뒤 타잔이 밀림에서 포효할 때 내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아아아아~!” 그리고 그 소리는 서너 번이나 반복되었고 저는 그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한동안 팬티바람으로 연병장에 허수아비처럼 서 있어야 했습니다. 연병장은 동료들의 웃음으로 가득했고 조 이병이 사격 때 생긴 상처의 양값음을 그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전 부대 진급식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후, 조 이병을 어떻게 했냐고요? 원래 부대의 전통이 진급식 일로 건드리지 말자였고, 사실 바늘로 꿰맨 조 이병 이마를 볼 때마다 죄 지은 느낌이 들었는데 많이 후련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을 조 이병, 많이 보고 싶습니다.

나의 연애시대

## 아내의 잃어버린 봄

최상열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30여 년 전 어느 날,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는 비포장 길을 달리는 시골 버스. 차바퀴가 뛰면 사람도 같이 뛰고, 창문을 통해 먼지가 쏟아지듯 들어오지만 더워서 닫을 수가 없던 그 무덥던 시골 버스. 내가 앉은 자리 옆 한 칸 건너에서 다소곳하게 앉아서 창밖을 내다 보던 촌스러워 보이던 한 처녀. 그때 그 시간이 그녀와의 운명적 첫 같은 공간이었다.

며칠 지나 해 저물녘 우리 동네 동구 밖 길을 건다가 마주친 낯선 처녀는 나를 의식한 듯 수줍은 듯 고개 숙여 애써 외면하며 종종걸음으로 도망쳤고, 이것이 두 번째 만남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시골집 안방으로, 31살 노총각인 아들 때문에 안달하시던 내 어머니와 옆집 아줌마가 마련한 쑥스러운 만남이었다. 경남 함천이 고향인 그녀는 고모집에 다니러 왔다가 운명처럼 나를 만났다.

내가 젊은 날, 군대 가기 직전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러 물에 들어

갔다 그 친구가 내 목을 잡고 놓지 않는 바람에 몇 번을 물속을 들락날락하기를 네 번째 만에 죽음에 처해 있을 때, 살아온 내 생이 파노라마처럼 그 짧은 시간에 지나가는데 고통보다는 형용키 어려운 죽음의 심연 같은 세계로 접어들던 야릇한 저승의 세상 같은 것을 느껴보았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왔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 후 군대에 갔고 거기서도 운전병이었던 나는 몇 번 위험한 죽음을 넘겼다. 그리하여 제대하고도 험하고 위험한 일만 하였다.

나는 왜 모질게 살아남았을까? 그것은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였는지 모른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나는 살아 기다렸다. 나는 이 시골에서 31년을 기다렸고 그녀는 25년을 그녀의 반쪽을 찾아 세상을 뒤졌다.

그리하여 그녀와 나는 맞선을 본 지 석 달 만에 서둘러 결혼했다. 읍내에 나가서 어렵게 만든 돈으로 가는 싸구려 금반지를 나눠 끼고 버스 타고 떠난 신혼여행은 처갓집 가까운 경상도 부곡온천.

그러나 그 꿈같은 허니문에서 돌아온 후 우린 싼값에 팔려간 용병처럼 인정 없는 세상 그리고 힘든 가난과 싸웠다. 그리하여 전리품처럼 또는 훈장처럼 세 아이들이 질서 있게 줄줄이 태어났고 노동과 고난의 대가치곤 보람 있는 결과를 받았다.

하느님이 주신 내 생의 최고의 선물 그녀. 그것은 거저 온 것이 아니다. 정을 베푼 대가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고모... 나는 누구에게든 관심 있고 친절했지만 경기도에서 유독 재밌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그분에게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해드렸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게 그분의 조카를 주선하셨다.

우리들이 사는 곳은 이 땅의 끝과 끝으로 그녀와 내가 만날 확률은

아주 적었다. 그러나 우리는 운명처럼 만났다. 몇 년 전 수백광년 먼 곳으로부터 떨어진 운석으로 황재한 사람처럼, 거의 불가능하고 가능할 수도 믿기도 어려운 확률.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다.

이들 후에 아버님 제사가 돌아온다. 생전에 아버님이 인연의 소중함을 말해주셨다. 우리 동네 이천은 6.25 전쟁이 터지고 사나흘 만에 인민군이 점령하였다. 세 번째 아들을 낳으신지 사흘이 안 되서 부모님들은 피난을 못 가셨고 인민군들은 우리 동네에 남아 있는 젊은이들을 잡아 인민군 의용군으로 보내려고 끌어들여 공터에 집합시켰다. 우리 아버지도 거기에 끌려 나가셨다. 적과 싸우는 거라면 당연히 가야 하지만 그 전쟁에 투입되면 적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국군의 총알받이가 되는 것이었다.

그때 한때 아버지가 관심을 갖고 잘해주었던 먼 친척 동생이 빨간 완장을 차고 있었다. 머슴살이를 하던 그 친민이 제 세상을 만난 것이었다. 즉 빨갱이었다. 그 손가락 하나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 늘 팔시받고 매 맞던 그를 우리 아버지는 항상 돌봐주셨다고 한다.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를 알아보고 인사한 후 뒤로 빼주셨다. 아버지는 마치 '선들러 리스트'처럼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아서서 형과 나를 이 세상에 받을 단게 해주셨다. 그 멸시받던 머슴이 우리 아버지를 구하신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로 경상도에서 낯선 곳으로 이사해서 서먹한 동네. 나는 그분을 잘 적응하게 해드리려고 관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한 대가로 나는 그녀의 조카를 선물로 받았다.

그녀가 오늘의 내 아내이다.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 관심 갖든 무심하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이지만, 그 인연이 어느 날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은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녀의 고모가 나를



노총각에서 구원해주었듯이, 몹시 가문 여름날 비를 간절히 기다릴 때 하늘에는 무수한 구름이 떠 지나간다. 그러나 그 구름 모두가 비를 담고 있지는 않다. 어느 구름이 비를 쏟아내려 줄 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은 신뿐이다. 그러므로 고를 선지력이 없다면 모두에게 인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해주면 되는 것이다.



오늘은 내 아내의 생일이다. 아내는 자신에게는 봄이 없다고 한다. 그리 크지 않은 식당을 하는 우리에게 아니 아내에게는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만 존재한다. 십년 전 사업에 실패했고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 간신히 살아났다. 그때 아내와 나는 이 식당에서 또다시 실패하면 같이 죽자고 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장사했다. 죽기를 각오하고 뛰었다.

나는 봄이면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건강하고 신선한 산야초를 채취해서 무한정 공급했고, 아내는 쉬는 날 없이 일을 했다. 무리한 지출을 삼갔고 또 어쩌다 지출했으면 쓴 만큼 다시 벌었다. 그리하여 십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오투기처럼 재기에 성공했다. 그 많은 빛을 다 갚았다. 풍족한 삶이 아니라 심적으로 여유로워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려웠던 그 시절을 웃으며 회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우리 가게는 이제 이천에서 제법 유명한 음식점이 되었고 점심시간이면 손님들이 몰려들어 밖에서 대기하는 풍경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 사람들은 내게 가게를 큰 데로 옮기거나 확장하라고 권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실수와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어렵게 얻은 소박한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으며, 무리한 욕심으로 스스로와 가족들에게 시련과 고통을 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더 큰 꿈과 야망은 내 아들과 딸 몫으로 남기고 싶다.

아내와 나는 이미 늙어가고 있고 몸도 골병이 들었다. 더 욕심내다가는 우리의 봄은 특히 아내의 잃어버린 봄은 영영 못 찾을 것이다. 이제는 돈보다 아내의 봄을 찾아 주고 싶다. 그 봄을 훔칠 사람이 아닌, 이번 주라도 가게 하루 쉬고 아내와 동해바다라도 한 번 다녀와야겠다. 아내의 봄을 찾아서...



일요일엔 편지를

## 응급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들에게

조이식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응급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들에게.

언제나 모두에게 생글생글 웃어 인기가 많은 아들. 요즘은 너 태어났을 때가 자주 생각난다. 어릴 때 잔병치레가 많아서 아빠가 너를 안고 병원을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몰라. 그런 내가 이제는 간호학과에 다니며 병원 응급실에서 3교대로 밤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더니 네가 너의 꿈을 향해 걷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 아빠는 무척 자랑스럽다.

이제 얼마 후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 등록금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며 엄마 아빠의 가게가 어려운 걸 알고는 학교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 다른 아들들을 보면, 군대 가기 전에 놀고 먹고 한하는데 너는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하며, 힘든 병원 생활을 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다. 얼마 후면 군 입대를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등록금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한 폰 두 폰 월급을



모으는 너. 아빠는 그런 널 보며 마음이 뭉클했다.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저 남들 놀 때 놀고, 남들 쉴 때 쉬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며, 다시 안 올 어린 날을 만끽하길 바랬는데, 일찍 철이든 아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부족해서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해줘서...

메르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병원 가기도 꺼린다고 하는데 몸조심하고, 이겨내 보자. 이 거친 풍파가 걷히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군대 가기 전까지 몸조심하고 아프지 말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살면 언젠간 우리 가족에게도 썩하고 해 뜰 날이 오겠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잊지 말고, 언제나 이렇게 웃으며 살자. 사랑해 올 아들!



일요일엔 편지를

## 내 딸 정빈이

심문구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북로



사랑하는 딸 정빈아, 아빠야.

정빈이에게 아빠가 편지 쓰는 건 처음이지? 우리 정빈이가 벌써 아홉 살이 되었구나. 정빈이는 알까? 정빈이를 9년 동안 키우면서 아빠 마음이 항상 아팠다는 거...

한 살 위의 오빠가 발달장애가 있어서 정빈이는 어쩔 수 없이 아주 어린 나이에 오빠한테 많은 것을 양보해야 했어. 그런데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오히려 오빠를 위해 기도한다는 착한 딸을 보며, 아빠는 너무 아팠어.

정빈이가 4살 때던가? 잠들 때면 엄마 곁을 당연하다는 듯 오빠에게 내어주고 정빈이는 그랬어.

“엄마, 오빠는 마음이 아프니까 엄마가 재워주세요. 저는 아빠랑 잘게요.”

그래 놓고 아빠 옆에 누워서 마치 배가 고파 아이 마냥 마음이 고



픈 아이 마냥 손가락을 빨며 잠들곤 했지. 그러면서도 너는 잠들기 전에 꼭 기도를 하더구나.

“하느님, 내일 아침에는 엄마가 오빠 말고 ‘정빈아~’ 하고 깨우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찍 잘 일어날게요.”

정빈이가 학교 들어가던 날도 기억난다. 엄마가 늘 오빠랑 함께 있어야 하니, 너는 혼자 학교에 가고 혼자 집에 와야 했어. 아무도 없는 집에 먼저 와서 엄마를 기다리는 날도 많았을 텐데 우리 딸은 어쩔 그렇게 의젓할까! 투정 한마디 없이 엄마를 오빠에게 내어주었지.

오늘은 엄마가 아침에 있던 애길 하더구나. 아침부터 오빠가 말썽을 일으켰는데, 그때 정빈이가 “엄마 저는 혼자 씻을 수 있어요. 엄마는 오빠만 잘 지켜보고 계세요” 하고는 너 혼자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머리까지 말리더라는 얘기. 아빠는 어린 내가 대견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더구나.

그런데 아빠는 그런 정빈이가 너무 예뻐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돼. 정빈이가 앞으로 커가면서 늘 그래왔듯이 오빠에게 양보하고 오빠를 챙기느라, 정작 네가 하고 싶은 말, 너의 꿈, 너의 마음까지 펴지 못하고, 그저 참고만 살까봐 걱정이 돼서 말이야.

정빈아, 아빠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아직 너는 어리단다. 엄마 아빠에게 투정 부릴 일이 있으면 큰소리로 투정을 부려도 좋고 오빠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거든, 그렇게 하렴.

아빠는 오빠가 소중하듯 정빈이도 소중하단다. 우리 정빈이 크면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틀림없이 훌륭하고 천사 같은 간호사가 될 거야. 네 꿈을 펼칠 때 도움이 필요하거든 아빠에게 당당하게 얘기해 주렴. 내 딸 정빈이를 응원한다.

사랑한다, 정빈아~.



# 그 여자의 의협심

그림 | 김곡, 우영미

※〈여성시대〉가족 김갑열(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씨의 사연을 각색한 만화입니다.





네... 제 여친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건요. 부모님을 닮아 그런 거였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부당한 일이 있으면 꼭 자기 일처럼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는 내 여친.

지금은 결혼 10년 차, 사랑스런 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 정말 멋지죠!



## 변화의 출발점은 아이 아닌 부모

글 |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트위터 아이디 @suhcs)  
일러스트 | 조신애

엄마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속상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있다. 아이에 의하면 엄마는 자신이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매일 자기의 안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다른 집의 친구와 비교를 한다. 자기가 저지른 약속 위반만 강조하지만 엄마도 약속을 어기는 때가 많다. 이렇게 한참을 씩씩대며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던 아이는 끝내 엄마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엄마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엄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아이가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먼저 못을 박는다. 아이가 말로만 한다고 하고 실천은 도통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는 시늉만 하고는 마는 격이어서 자기가 아예 별명을 '시늉이'라고 지어 불렀다고도 한다. 자기는 언행일치를 늘 강조하면서 키워왔는데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꾸념을 한다.

엄마는 내심 내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며 아이를 바꿔주기를 바랬다. 나는 엄마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했지만 엄마의 바람을 들어줄 수는 없었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잘못을 꾸짖으며 방향을 잡아주려 하는 것은 엄마가 그동안 많이 해온 일이다. 많이 해왔지만 늘 실패해온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내 앞에 앉아있는 것이다. 소아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별 빠른 수를 갖고 있지는 않다. 마음에 상처는 입히지 않으면서 따끔하게 혼내서 아이를 바꿀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는 갖고 있지 않다.

**소아정신과 의사는 이 상황에서 아이보다는 부모에게 먼저 집중한다. 변화의 출발점을 부모에게서 찾으려는 것이다.** 아이가 가진 문제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소아정신과 문제에서 양육자로서의 부모가 원인에 기여하는 부분은 20% 미만이다. 가장 큰 원인은 아이가 갖고 태어난 두뇌에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잘못이 아니라고 해서 부모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부모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위기에 빠진 아이들은 스스로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부모는 정신 차리라고 아이를 야단치지만 아이들은 야단을 맞으면 기분만 상하기도 하고, 마음만 급해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생각이 얼어버리기도 한다. 아이들은 당황해하면서 헤매고 흔들리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위축되고 만다. 그러니 아이를 포기할 것이 아닌 다음에야 아이보다는 좀 더 성숙한 부모 쪽에서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을 수밖에 없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부모라면 두려움 속에서 변화의 길로 내딛지 못하는 아이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다. 바로 아이의 지금 모습이고, 우리가 바꾸고 싶은 현실이다. 그 지점이 우리가 아이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지점이다. 아이가 쓰러져 있지 않고 스스로 잘 걷고 잘 뛰어다닌다면 우리는 도와줄 일도 없다. 문제가 없으니 부모의 필요성도 줄어든다. 지금 아이가 문제를 보이기에 우리는 부모로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시각을 바꾸어 보자. 아이가 말만 한다고 엄마는 불평하지만 만약 말조차 안 한다면 어떻게겠는가?**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지 않고 배를 땅에 붙이고는 움직이지 않으려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해보겠다고 말을 할 때는 아직 아이가 자신을 온전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이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처진 태도로 의욕 없이 지내거나, 순간적인 즐거움에만 빠지게 된다.

**아이가 말로라도 긍정적인 목표를 이야기한다면 그것 그대로 긍정 해주자.** 인간은 누구나 말보다 실천이 어렵다. 실천이란 어려운 관문을 넘어서기 어려운 아이에게 '아이뿐 아니라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위인전의 위인들도 마음먹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인정해주자. 인간은 자기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건디기 어려운 법이다. 이런 상태라면 쉽게 자포자기하게 된다.

아이는 약하다. 약하기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더 이상 '말만 한다', '말뿐이다' 꾸짖지 말자. 말이라도 하니 기특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니 대견하다고, 어렵지만 한 발자국씩 떼어보자고 격려하자. 이 격려가 스스로도 기운을 잃고 핑계 속에 부끄러운 자신을 숨기려하는 아이에게는 햇볕이 될 수가 있다.

섬 둘레길 걷기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2015년 7월은 어수선했다. 어른들 말씀이 사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나는 법이라는데 <여성시대>는 워낙 사연이 좋고 탄탄해서 진행자가 할 일이란 게 가끔 자기 얘기 보태고, 편지 내용을 잘 전달만 하면 되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사람 난 자리의 표가 덜 난다고 해도 남녀 두 사람의 진행자가 새로 호흡을 맞추기까지는 적어도 3년은 필요하다.

내가 던지면 상대가 받고, 상대가 맥이면 내가 풀고 이런 호흡 맞추기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그걸 쥐고 기분 좋은 케미를 만들어 가는 게 일이다. 무엇보다도 듣는 이들이 먼저 알 테니까. 말뿐 아니라 말 사이의 뜸 들이거나 서로의 반응을 통해 이 사람 둘이 환상의 복식조인가, 아닌가는 애청자들의 기능이 정확하다.

새 사람으로 바뀌면서 여성시대에서 세월을 많이 보낸 내가 제일 힘들다. 익숙하면 타성에 젖지만, 나름의 편안함도 있는데 얼굴과 이름을 알아도 어찌 살아왔고,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저 사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진행자의 속마음을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는 게 라디오고 그래서 더 무서운 매체라는 생각이다.

나는 그 간의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섬 여행을 떠났다. 어차피 주말 이들은 녹음방송이니까 토요일 아침 6시 30분 강남의 어느 공영주차

장에서 섬학교 학생들을 태우고 버스는 출발했다. 독일서 온 친구와 그 아들, 식구 같은 후배 두 사람 그리고 나 이렇게 다섯은 이미 40회째 떠나는 섬학교 학생들 틈에 끼이기였다. 삼천포까지 가서 한정식으로 점심 먹고 적량에서 출항하여, 20여 분 후 수우도 도착. 내리자마자 깔딱고개로 능선까지 오른 뒤 작은 바윗돌을 밟으며 울퉁불퉁 걸었다.

섬학교 교장선생님은 지난 10년간 400여 개의 섬을 걸으며 글과 사진으로 섬과 섬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강재운 시인이다.

25가구 30여 명의 섬사람들은 대부분 독거노인 가구다. 노인들은 가난하고, 노동력과 자본력 있는 젊은이들은 홍합양식 등으로 부유하다.

수우도는 산이 좋다. 하산 후 비록 무릎, 발목이 욱신거리지만 좋은 건 좋다고 말해야지. 수우도에서 나와 삼천포 실비집에서 맛난 저녁식사 후 숙소에서 뻘었다. 내일 아침에 제대로 일어설 수 있을까? 싶었다. 다행히 일어나니, 그러저럭 괜찮았다. 아침식사는 해물탕. 어찌나 맑고 깨끗한지 아침을 안 먹는다는 사람들도 한 그릇을 푹딱 비웠다. 해산물이 싱싱하니 갯것의 비린내도 없다.

우리는 공룡유적지 고성 상족암을 향해 쪽 걸었다. 상족암은 미국 콜로라도주, 아르헨티나 서부해안과 함께 세계 3대 공룡 유적지로 인정받았다. 길 따라 걷다가 바닷가 근처 예쁜 카페를 발견하고 아침 커피를 맛나게 한 잔하고, 박재삼 문학관으로 갔다. 마음을 울리는 절제된 슬픔의 시. 문학관 언덕에서 내려오면 삼천포 어시장이 있다. 점심을 삼천포 한정식으로 먹고, 어시장에서 지리멸치, 말린 홍합, 파래, 가시리 말린 것 등을 사서 서울로 왔다.

굳이 힘겨운 등산보다 섬 둘레길 걷기도 권한다. 섬학교 시작부터 함께한 분들에게 여태껏 다닌 곳 중에 어떤 섬이 좋거나 물었더니 굴업도와 관매도와 연화도를 꼽는다.

## 《점심메뉴 고르기도 어려운 사람들》

결정 스트레스 벗어나는 11가지 방법

글 | 한창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최근 인기 있는 식당 중에 특이한 메뉴 선택 방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식당은 손님이 오자마자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음식이 나온다고 한다. 바로 이전 순서에서 식사를 한 손님이 먼저 주문해준 메뉴가 나온다는 것인데, 이는 곧 메뉴 주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것이 편한 손님들을 위한 식당이다. 결국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고 나가면서 다음 손님을 위한 메뉴를 주문해야 하는데, 다음에 오는 손님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메뉴가 나올 경우, 패스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소비자들은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고, 시장에서는 더 많은 선택을 받으려는 상품끼리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럴수록 소비자는 더욱 선택이 어려워진

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선택을 강요 받으며 심리적으로 더욱 불안해지는 소비자들, '결정장애' 혹은 '결정불능 증후군'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대 처방법을 소개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미국 스위스모어대학교 사회행동학 전공의 배리 슈워츠 교수는 《점심메뉴 고르기도 어려운 사람들》에서 선택의 고통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11가지를 제시한다. 적당히 좋은 것을 조기에 선택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극대화'를 삼가고 적당히 만족하거나, 어떠한 선택을 해도 시간이 갈수록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적응'을 스스로 이해하게 한다. 결국 최고보다는 충분히 좋은 것을 선택하는 마음의 단련을 익숙하게 하라는 것이다.

책에서 소개하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다. 잼을 시식하는 경우인데 하나는

시식할 수 있는 잼이 6종, 다른 하나는 24종인 상황이었다. 시식대에 놓인 잼이 적을 때보다 많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나, 두 경우 모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맛본 잼의 수는 거의 똑같았다. 그런데 실제로 구매한 비율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시식대에 진열된 잼이 적을 때는 시식자 중 30퍼센트가 잼을 구입했지만, 진열된 잼이 많을 때는 고작 3퍼센트만 구입했던 것이다. 이렇게 무한한 선택은 자유보다는 마비를 야기시킨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선택해야 할 게 너무 많다보니 과부하가 걸리고, 혹 선택한다 하더라도 포기한 것에 대한 미련과 더 좋은 게 있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만족감은 곤두박질칠 뿐이다. 선택하는 건 어렵고, 잘 선택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

95% 무지방 요구르트가 지방 함량 5% 요구르트보다 더 몸에 좋겠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 결국 손해 보기 싫어서 교묘한 마케팅기법을 눈치 채지 못하는 '손실회피'의 속성이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현대소비에서 소비자는 항상 선택



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스스로 그 선택을 잘 정리해내면 더 나은 마음이 짐을 가질 수 있다. 실제 살고 있는 시간보다 살아보지 않은 시간에 대해 늘 걱정하고 고민하게 되는 심리, 매일매일 반복되는 '반사실적 사고'가 결국 소비라는 행위의 문제를 만족보다 매번 불만족으로 몰아간다.

영리한 소비를 위해서는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자신만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정하고, 기능과 효과를 자신의 상황에 맞춤형으로 정해놓으면 더 편한 소비를 할 수 있다. 소비는 내가 편하라고 하는 것이다.

배리 슈워츠 지음 | 예담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여성시대**  
양희은 · 서정석입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마산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일악) / 97.1(삼대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이동 수단의 혁명을 가져온 **원의 발명**



스마트 금융의 기준을 바꾸는 **원의 발명**



# Real Mobile Bank i-ONE뱅크

스마트 금융 시대의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은행의 발명! Real 모바일 은행 i-ONE뱅크와 만나면 편리한 은행 업무부터 전문적인 금융서비스까지 금융에 관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금융거래
- 모바일에서 바로 가입하는 금융상품
- 자산설계부터 지출관리까지 도와주는 금융메니지먼트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준법감사인 사무필 제2015-1403호(2015.09)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서는 가맹점영업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규약에 해감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한 사심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